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22일)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천릿길을 순례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을 향한 불자대중의 찬탄이 이어졌다. 불교중흥을 위한 삼보사찰 천라순례 대장정의 회향식이 진행된 10월 18일 불보사찰 통도사는 환희로 가득찼다. 취타대의 풍악 속에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부처님이 설하신 수미산이 바로 이 곳임을 알게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삼보순례 대장정 회향…'불교중흥' 발원

상월결사 삼보순례, 10월 18일 통도사서 회향

19일간 423km 행선 완보
불자대중 환호 속에 회향
통도사 금강계단서 재발원
"적극 · 친절 불교 나아갈 것"

숫자로 보는 삼보순례

108명	삼보순례단 인원
200명	최대 1일참가자
423km	누적이동거리
1079m	최고 등정 고도(성삼재)
64만보	순례단 완보 회수
無量數	숫자로 표현 못한 신심과 원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변화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깃발을 중생계와 허공계에 회향합니다."

불교중흥의 서막,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대장정을 회향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순례단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순례를 회향했다. 9월 30일 승보종찰 송광사에 모여 10월 1일 입재한 이후 19일만으로 423km를 직접 걸은 대장정의 대미였다. 순례단은 부처님과 같이 길위에서 수행하고, 길위에서 먹고 자며 정진했고, 가는 곳마다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한국불교 중흥의 미래를 엿보게 했다.

순례단은 19일 차인 이날 울주 숙영지를 출발해 양산으로 진입, 불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도사에 도착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선다회 등 사부대중이 통도사 산문부터 길게 줄을 서서 순례단을 환영했다. 통도사 취타대의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순례단에 불자들은 목도리를 공양올렸다.

통도사 숲길에서 일주문을 향해 마지막 행선을 진행한 순례단은 통도사 금강계단으로 향했다.

회주 자승 스님 등 순례단 전원은 맨발로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세 번 돌며 삼배의 예를 올렸다. 대장정 동안 상처투성이가 된 발이 드러나자 마중을 나온 좌중에서는 감동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리탑 탑돌이를 하며 순례단은 그동안의 순례가 깨달음을 향한 길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평화와 행복을 향한 이타행임을 나타냈다.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순례단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축원과 함께 이날 순례는 마무리했다.

이어진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은 영상법문으로 결사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이 맡은 자리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중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향식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이 순례에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이 주지 현문 스님에게 상월결사 정신을 담은 죽비를 전달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423km 천리길을 걸으며 부처님과 같이 길 위에서 먹고 자고 법을 편 여러분은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며 "상월결사는 상구보리의 씨앗, 자비순례는 하화중생, 이번 만행결사는 자리이타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 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힘찬 도약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향식에서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법석에 서서 순례단을 찬탄했다. 성파 스님은 "산에 올라가면 다리힘을 알 수 있고, 물에 들어가면 길고 짧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만행결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다르다"며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다"고 법문했다.

끝으로 순례단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대장정 회향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을 통해 순례단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아쉬움을 뒤로 회향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과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로 사회 소외계층에게 순례의 성과를 회향하고, 불교중흥을 위한 장정이 끝이 아님을 알린다.

〈관련기사 4 · 5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ACRP 공동회장 선출

10월 19~22일 ACRP총회서 2026년까지 5년 간 임기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아시아종교인평화회(ACRP)의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ACRP는 10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원행 스님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원행 스님의 공동회장 임기는 ACRP 차기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원행 스님은 공동회장 수락 연설에서 "아시아는 세계의 주요 종교가 탄생한 종교 성지이며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종교간 화합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CRP 공동회장으로서 남북 종교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종교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아시아 종교간 협력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행동하는 아시아종교인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아시아 20여 개 국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노력이 소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고

"포교가 곧 불교중흥입니다"

새로운 인연 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불자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교계는 유례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 단체들이 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일선 불법 홍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포교는 불교중흥을 이루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불교중흥으로 나아가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전시 기간 : 11월 2일(화)~8일(월)
장 소 : 동국대학교
개 막 식 : 11월 2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4층

주 최 :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
주 관 : 동국대학교, 아름다운동행, 상월결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인도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10.27법난명예회복기념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나눔기금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건립
불교요양원 건립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행

10월 21일 동화사서 비구66 · 비구니16명 품수

82명 역대 최고 수준 품수
진제 대종사 · 법계증 전달
"대열반 향한 정진" 발원도


조계종은 10월 21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대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대종사 · 명사 품서식이 봉행됐다. 비구 스님 66명과 비구니 스님16명이 대종사와 명사에 품서됐다.

조계종은 10월 21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은 △고불 △헌화 △법계증 및 가사수여 △가사정대 △불자(拂子)봉정 △여의(如意) 증정 △법어 △축사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품서식에는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법계위원장 원경 스님,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품서를 받는 스님과 시자 스님 외 참석이 제한됐다.

이번에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총 82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품서식이 연기됐고, 특별전형 등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지안 스님과 영운 스님에게 법계증을 전달했으며, 종단 최고 법계를 상징하는 가사는 의현 스님, 명사 스님, 일법 스님에게 수여됐다. 대종사 · 명사 스님들은 정대한 뒤 가사를 수했으며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를 대종사를 대표해 현봉 스님에게 전달했고 여의는 도문 스님에게 수여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는 "금일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에 임하는 용상고덕(龍象高德) 스님들께 사부대중과 더불어 찬탄하고 만심환희(滿心歡喜)한다"며 "대종사와 명사는 일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지혜와 덕성을 두루 갖춤이니,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요, 만고의 귀감"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작금의 인연은 임운자재(任運自在)의 한가로움을 누리심과 동시에 종강(宗綱)을 바로 세워 부처님 수행가풍을 다시금 부양해 정법구주(正法久住)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 · 명사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을 선양하는데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다"며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종사 · 명사 스님들을 대표해 지명 스님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오늘 이곳 팔공산 동화사에서종단 최고 법계를 품수하는 대종사 비구들과 명사 비구니들이 오랜 세월 선근인연으로 세간의 온갖 번뇌를 여의고 지금 이 법석에서 큰 서원을 발하옵고 역대전등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한다"며 "또한 이로부터 바다같이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수지하여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종사 · 명사 법계는 조계종에서 출가한 스님에게 최고 법계이다. 승랍 40년 이상의 스님에게 수여되며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한다.

조계종 내년 예산안도 동결…백만불사 가시화

10월19일 교구본사주지회의 종회 앞두고 주요 사업 보고


조계종은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찰의 어려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22년 예산안도 2021년 기준으로 동결했다.

조계종은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 조계총무원장)를 개최하고 △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 관련 보고의 건 △국 · 시립합창단 종교편향 현황조사 결과 등 보고의 건 △종단 주요불사 및 백만원력결집불사 경과보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7명 중 대리참석 3명 포함 2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교구와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찰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여건을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각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2021일 본 예산 대비 동결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와 정치일정으로 혼란스럽지만 불교계는 종단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며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모든 종무원들을 대표해 교구본사주지스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주요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교요양원 건립불사 등 10건에 대한 현황 보고도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도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현재 요사 및 대웅전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5월까지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단청 공사와 수미단 등 내부 장엄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12월 경 대웅전 준공식 및 점안법회 봉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10월 24일 교육관 준공법회에 이어 2022년 6월 대웅전을 완공할 예정이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지에 건립 중인 불교요양원 불사는 현재 부지와 관련한 서류상 절차는 상당부분 마무리하고 2022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행 스님은 "내년에는 종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목적불사가 회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단 목적불사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논의체계 필요"

주호영 의원, 10월22일 원행 스님 예방서 피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제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주 의원은 "매 선거때마다 불교현안이 불교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만 이행률이 낮아 개선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이행률 점검 및 근본 문제에 대한 논의 등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불교공약은 각 후보들이 선거때 발표하지만 정작 국정과제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이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찰들을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편입시키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과 논란, 전통사찰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법령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핵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원행 스님은 "불합리하고 중첩적인 각종 규제 법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제도 · 복지 · 포교 현주소서 발전방안 도출

태고종, 10월 22일 미래탐구 학술세미나

발제자들, 현황분석 · 제언
종학토대 · 인재양성 필요
법계 · 전법사 제도개선도


태고종이 10월 22일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미래지향성 탐구' 주제 학술세미나.

태고종이 현재의 종단 안팎의 문제점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10월 22일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미래지향성 탐구' 주제 학술세미나는 '태고종 정체성 탐구'를 위한 세 번째 법석으로, 각 분야별 발제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제언을 쏟아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방룡 교수는 '태고종의 나아갈길_보살불교와 포교의 미래'란 주제발제를 통해 태고종학의 정립, 그리고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불교학자의 입장에서 태고종 현주소를 말한다면 뚜렷한 '종학'이 정립되지 않는 종단으로, 태고종학의 정립 없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이제 타고종의 종지와 교리, 운영과 포교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단적으로 태고종학을 위해 진력하는 불교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인적 인프라의 구축과 활동을 통해 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점검은 물론, 나아가 태고종의 육부승 제도를 토대로 전법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태고종 사회복지사업의 현 단계와 과제'를 주제로 태고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짚었다. 조 교수는 각 종단의 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현황을 토대로 태고종 복지법인 및 시설수가 종단 규모에 비해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복지원이 종단 차원의 복지중심부로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을 사회복지원 직속으로 편입해 사회복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용월사 주지 법우 스님의 '태고종의 출가제도와 승가교육 체계'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동아시아 불교에서 계율의 수용과 발전_범계 판단의 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제점숙 동서대 교수의 '근대 조선불교의 승려 결혼에 대한 논쟁', 아오노 미치히코 교수의 '일본불교에 있어 승려의 대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태고종 교육원장 법안 스님(안심정사 회주)을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제3차 학술세미나는 지난해와 같이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 적통을 바로 이어오고 있는 태고종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그 바탕위에서 본 종단이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길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며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 모든 종도가 안정된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세미나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어 한국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태고종과 더불어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종단은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더욱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정청래 의원 제명 촉구" 확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 10월 19일 비판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공식 사과도


송영길 대표와 면담중인 스님들.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폄훼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조계종 27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당적 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발언은 당의 입장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조계종에 공식사과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10월 19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폄훼하고 불교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정청래 의원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매도했다"며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호도, 그리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 "의원 개인의 발언일 뿐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영길 대표는 10월 20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의 항의방문으로 마련된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수석부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과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교구본사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기획실장 삼혜 스님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외에 김영배 최고위원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한병도 원내부대표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 봉은사 · 보문사 직영사찰 주지 연임

10월 22일 임명장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이 연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현, 원명, 선조 스님에게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오셨는데 어려운 소임을 다시 맡게 되셨다"며 "종단과 함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직영사찰의 본역학은 사찰 안정과 전법포교, 종단 외로하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직영사찰 주지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종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기도도량인 보문사를 잘 살펴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다"며 "종단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소임자들도 직영사찰 운영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승가화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불교학연구〉, 이자랑 · 조기룡 교수 특별논문 게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4년 일어난 조계종의 종단 개혁은 한국 현대불교사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현재의 종헌 · 종법과 종단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 그렇기에 94년 종단 개혁은 일종의 '절대선'이었고, 쉬이 비판하기란 어려웠다. 하지만, 94년 종단 개혁의 한계와 과제를 비판적으로 분석 · 고찰한 불교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불교학연구〉 제68호는 '한국불교 종단개혁의 상처와 치유를 고민한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에는 '개혁종단의 징계에 대한 율장적 검토(이자랑)'와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조기룡)'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논문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의 주도하에 이뤄진 4.10 전국승려대회와 개혁종단이 진행한 궐석심판, 체탈도첩 등을 율장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과정들이 불교의 율장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국승려대회의 경우, 이 교수는 갈마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승려대회가 초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가 '모든 승려가 한 곳에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분쟁 중인 양측 중 한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전비니'라는 멸쟁법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전비니'를 성립시키는 조건은 승가 · 법 · 율 · 사람이다. "원고, 피고를 포함한 승가 구성원이 전원 출석한 자리에서 법과 율에 근거해 멸쟁이 이뤄질 때 그 갈마의 결과는 유효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갈마는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법의 기준을 확인하며 승가 구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과 율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여부의 확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승려의 만장일치가 가능하며 화합도 가능하다"면서 "이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승려대회는 불교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방법인 갈마에서 연원을 찾아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궐석심판도 '현전비니'의 요건 중 하나인 '사람'이 부재했음을 지적하며 "궐석심판이 승가화합과 관련해 이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징계 과정을 살핀 이 교수는 개혁종단이 '승가화합'의 가치를 크게 염두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94년 종단의 3대 개혁 과제에는 '인적 청산'이라는 말과 5대 지표와 실천을 위한 세부사업의 과제 안에는 해종행위자 정화가 들어 있는 등 승가 화합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궐석심판 용인과 멸빈 대상에 대한 조항 등은 지금도 조계종 법령집에 반영되고 있다.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를 종단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살폈다.

조 교수가 꼽은 개혁종단의 한계는 △종책모임 대두와 종단정치 과잉 △개혁의 세속성 △승가 갈등과 분열 △행정 중심의 종단 운영 등이다.

그는 "개혁종단의 목적은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로 집약된다. 개혁종단의 개혁은 과연 조계종의 궁극점인 종지를 향해 이뤄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정부의 행정 체계를 모방해 관리 감독의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혁종단의 과제로는 △종교적 정체성 회복 △화합공동체의 실현 △비구니와 재가자의 참종권 확대 △종단조직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개혁종단 출범 이래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세속적 가치의 실현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수행과 전법을 향한 종단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제 조계종은 정치와 행정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종헌 · 종법을 제 · 개정하고 종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계종은 사회화와 세속화를 혼동하지 말고, 탈세속화를 통한 불교적 종교성 회복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개혁종단이 조계종을 진정한 종교 · 불교조직으로 만드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1994년 4월 10일 조계사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사진 왼쪽)와 개혁회의 현판식 모습. 94년 종단 개혁을 상징하는 사진들이다. 현재 조계종의 행정체계를 확립한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다룬 논문들이 발표됐다.

승려 대회 · 궐석 심판 등
율장적으로 검토 · 분석해
화합 중시 율장과는 달리
한쪽 기준으로 징계 진행

종단 행정체계 정립 성과
세속화 · 불평등 부작용도
"수행 · 전법, 중점에 둬야"

학교수업 · 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봇물'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렸다. 장기간 이뤄지는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 우울감과 분노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의 방안 논의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는 10월 22일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교장 오종환, 이하 영석고)에서 제50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우수형 영석고 교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립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줄고, 학교 공동체 활동이 줄었음을 지적한 우 교법사는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을 청정케 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인성을 함양하는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 · 구 ·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업 디자인 사례로 꽃밭 가꾸기를 통한 산책명상(신), 만다라 그리기(구), 바디스캔 명상(의)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 연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교내 동아리 협조 △불교동아리 공모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다.

우 교법사는 "꽃밭 가꾸기, 만다라 그리기, 바디스캔 등은 모두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 수업을 안내하는 교법사의 개성에 맞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대중들의 우울감 등을 불교심리치유로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2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미술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심리 · 사회적문화재와 불교심리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심리치료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유식학적 성찰과 심리치유-코로나 블루와 관련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의 감정을 유식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기제를 서구 심리학과 비교해 고찰했다.

오지연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천태지관사상의 활용'에서 중국 천태종의 사명지례가 쓴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서 불자들의 수행법을 제안했다. 또한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는 '코로나19 상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상담을 중심으로'를, 윤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우울을 다루기 위한 수용전념치료와 불교 상담 비교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불교적 프리즘으로 조명하고 인문학적 해법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3일 오후 1시 '불교와 역병: 2500년의 아시아를 가로지르다'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ZOOM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 · 동북아 · 한국불교가 역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는지를 조명한다.

1부에서는 '불교에서 보이는 질병의 악귀들의 조복, 그리고 역할의 변화(심재관, 상지대)'와 '율장에 보이는 질병과 재난의 코퍼스(이자랑, 동국대)'가 발표되며, 2부에서는 '몽골 전통유목사회의 역병 관리와 신앙(김경나, 단국대)'와 '동아시아 불교, 영험과 치병의 사례 · 7~9세기 신라와 일본의 역병 인식과 불교의 대응(박광연,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대중에게 소개된다.

불교교육연합회서 학교 전법교화 프로그램 사례 발표
불교문예연구소, 불교심리치유 통한 우울 극복 논의해

신성민 기자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 정문 스님 선출

22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금호 정문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10월 22일 다보원 법당에서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정문 스님을 선출했다.

종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뤄진 이날 이사장 선출에는 정문 스님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후보로 나왔으나 수불 스님이 후보를 사임하며 정문 스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선출 직후 정문 스님은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하지만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사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관 미비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 정문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등 주요 소임을 맡으며 종무 행정력을 인정받았으며, 경주 연지암 · 포항 임허사 · 보경사 · 강화 보문사 등 주요 사찰 주지를 역임하며 전법 포교활동에도 진력했다.

제12 · 13 · 15대를 거쳐 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5대 종회의원 재직 시에는 전반기 차석부의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중앙종회를 이끌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장, 불국사 부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적 이사 22명 가운데 현문 스님과 원종 스님, 종호 스님, 성행 스님, 화평 스님, 현민 스님, 월장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이한구 이사, 이선재 BBS 사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부단장 당선

10월 16일 단장 · 지역단장 선거 실시

조계종 포교사단은 10월 16일 12대 포교사단장 및 지역단장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수석부단장<사진>을 선출했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충북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건설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2006년 11기 포교사, 2016년 10기 전문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충북지역단장, 포교사단 수석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11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포교지도'와 '정관개정'을 완성해 포교활동의 제반 현황을 수치적 통계 데이터로 집대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 단장선거 최초로 대의원들의 직접투표로 실시된 선거의 당선자라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역단장 및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소임중에 느낀 중요 과제인 '소통, 공유, 재교육'의 개선점을 찾아 '포교의 지평을 더 넓고, 크게 확장' 시켜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며 2년간이다.

포교사단은 이날 지역단장 선출도 마무리했다. 서울지역단장에 서정각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에 송재린 포교사, 대구지역단장에 이현숙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장에 유희열 포교사가 각각 선출됐다. 또 인천경기지역단장에 권태근 포교사, 울산지역단장에 정연숙 포교사, 경북 지역단장에 이미숙 포교사가 당선됐다.

그 외 지역단은 현 단장이 연임됐다. 광주전남지역단 강윤구 단장을 비롯해, 전북지역단 김용수 단장, 강원지역단 김효현 단장, 충북지역단 김명동 단장, 경남지역단 박해덕 단장, 제주지역단 이명직 단장, LA지역단 이영미 단장이 연임해 활동을 이어간다.

노덕현 기자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불교평론 학술상과 통합 운영
정각사서 매년 500만 원 지원

현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 박사(1902~1980, 사진)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뇌허불교학술상'이 다시 운영된다.

불교계 대표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은 "올해부터 2001년 이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을 '불교평론학술상'과 통합해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을 시상키로 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뇌허불교학술상'은 뇌허불교학술원이 제정한 상으로, 해당 기관은 한국 비구니계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였던 故태허 당 광우 스님이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덕을 기리고 불교학 진흥을 위해 설립했다.

불교계 최초 학술상이던 '뇌허불교학술상'은 매년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학자를 선정해 뇌허의 이름으로 시상해 왔다. 이는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1983년 1회 수상자인 김영태 박사를 필두로 원의범 · 이영무 · 서법경 · 강건기 · 서윤길 · 정성본 · 윤호진 · 박선영 · 장충식 · 정병삼 · 김상현 · 전재성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뇌허불교학술상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상의 권위와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후원자인 광우 스님의 병환과 원적 등으로 뇌허불교학술상은 20년 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뇌허 김동화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뇌허불교학술상의 부활을 논의한 끝에 지금까지 이 상의 운영자인 정각사(주지 정목)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부터 불교평론 학술상과 통합해 수상자를 선정 · 시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각사는 매년 500만 원의 상금을 후원한다.

〈불교평론〉은 "'뇌허불교학술상'이 한국불교학의 태두였던 뇌허 김동화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만큼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교학자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는 권위있는 학술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화쟁인문학' 연구 방법론 논찬 본격화

영산대 화쟁연구소, 11월 6일 비대면 학술대회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 속 화쟁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소장 박태원, 울산대 명예교수)는 11월 6일 오후 1시 '화쟁인문학의 전망과 연구방법론(1)'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된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화쟁학'과 '화쟁인문학'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설립 후 첫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박태원 화쟁연구소장은 '화쟁학의 의미와 전망-붓다 · 불교 · 원효와 화쟁인문학'을 기조발표하며, △프랑스 차이 담론의 화쟁학적 탐구 가능성- 차이 개념 자체에 대한 탐구와 차이의 배타적 차별 극복을 위한 방법론 연구(안은희, 서울과학기술대) △초기불교의 화쟁학적 탐구- 차이담론을 위한 시론(우동필, 전남대) △만해 한용운의 횡단적 사유와 시집 〈님의 침묵〉의 화쟁론적 읽기(이선이, 경희대) △인성교육을 통한 대승불교의 화쟁학적 탐구- SEE Learning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김현구, 전남대)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박 소장은 "화쟁연구소는 한반도 전통 지성의 성찰을 등 바람 삼으면서 동서양 인문 지성의 관련 성찰들을 융섭시켜 보편적 수준의 타당성과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화쟁인문학을 수립하고자 한다. 화쟁인문학을 화쟁학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삼보순례 중 최대 난코스인 사자평에 오른 순례단 앞에는 부처님 광명이 밝게 비쳤다. 갈대들의 환영 속에 묵묵히 순례단은 행선을 이어갔다.

신심으로 423Km 64만步…걸음마다 불국정토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

동행취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재해 10월 9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회향한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은 신심으로 일군 불교중흥의 장이었다.

순례단의 누적이동 거리는 423Km. 순례단은 영호남에 걸쳐 5개 광역지자체와 12곳 기초지자체를 지나고 백두대간의 정맥들을 넘었다. 한반도 남쪽을 횡단하는 대장정을 오롯이 타고난 두발에 의지해서 이뤄냈다. 이 같은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를 중흥해야 한다는 '간절함' 과 코로나 상황에서 시름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9월 30일 송광사에 집결한 순례단의 의지는 결연했다. 상월결사 측은 재가자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가사를 수여하고, 순례단 전원에게 행선을 위한 염주 등을 전달했다.

10월 1일 입재식과 송광사 참배는 불교쇄신의 기치였던 정혜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대 불교중흥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순례, 사회화합 순례를 펼쳐 나가겠다."

서원 속에 순례단의 간절함이 배여 있었다. 순례단은 하루에 25~30km 가량을 걸었다. 첫날인 10월 1일에는 송광사를 출발해 곡성 일대를 걸었고, 둘째 날에는 섬진강변을 따라 구례에 도착했다. 2020년 자비순례와 달리 사찰 참배와 함께하기에 인근 사찰 방문도 이어졌다. 순례 둘째 날 걷기 일정 후 순례단은 원효 · 의상 · 도선 · 진각국사가 수행한 수도성지 사성암을 참배했다. 수십km를 걸어 지친 상태에도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이날 오후에는 사성암음악제 '길위에서 길을 찾다' 도 진행돼 순례단의 피곤한 몸을 음성공양으로 잠시 잊게 했다.

셋째 날 순례단은 다시 섬진강을 따라 화엄사로 향했다. 국난극복의 의미도 지닌 순례이기에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前 국회 정각회장(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마당에서 순례단은 사사자 삼층석탑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순례단이 묶는 날 화엄음악제에서는 '화엄', 즉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진 듯했다.

어머니의 품같은 화엄사에서 다시 순례를 나선 순례단은 넷째 날인 4일 지리산 자락으로 접어들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으로 영호남 23개 시도에 걸친 산 속에서 순례단은 다시 한 번 순례 의지를 다졌다. 지리산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잠깐 소원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과 반야심경을 외고 불전을 놓았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과 순례단이 건강하게 원만성취했으면 하는 마음 등 소원지마다 쓰여진 내용은 같았다.

천은사를 나온 순례단은 지리산 시암재를 올랐다. 넷째 날 회향지는 시암재 휴게소. 급경사로 순례 난코스 중 하나였지만 앞사람이 간 길을 따라 뒷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힘을 얻어 순례단은 시암재에 올랐다.

순례 다섯째 날, 순례단은 지리산 바람을 뒤로 해발 958m의 고도를 걸어 순례에서 가장 높은 성삼재(해발 1079m)로 향했다. 새벽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와중에 어느새 고갯길은 끝나가고 있었다.

순례 여섯째 날인 6일에는 실상사 참배가 진행됐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실상사를 참배한 순례단은 실상사가 운영하는 인드라망공동체와 같은 사부대중 공동체를 소개받았다. 생명평화탁발순례 등을 이끈 도법 스님은 순례단을 향해 "신심과 발원들이 한국불교의 새 활로를 여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례단은 이어 함양 오도재를 넘었다. 해발 773m로 앞선 고개보단 낮았지만 구불구불한 굽이길이면서 계속된 오르막길로 구성돼 순례단을 시험에 들게 했다.

순례단이 오도재 전망대에 이르자 가장 먼저 순례단을 반긴 것은 회주 자승 스님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남긴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 는 현수막이었다. 또 불보종찰 해인사에서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이 마중 나와 순례단의 고행을 격려했다.

순례단이 이번 순례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인한 고갯길 뿐만이 아니었다. 이상기온으로 당초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늦여름 더위가 순례단을 힘들게 했다.

새벽 행선 이후 정오 무렵 더위와 싸우며 걸은 순례단은 숙영지 텐트에서 저마다 피로를 회복해야 했지만 달궈진 텐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 직원,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불교 중흥 원력, 불자대중 결집
국난 극복 희망, 지역사회 심어
10월18일 불보종찰 통도사 회향

여덟째 날인 8일, 잠시 내린 비를 맞으며 순례한 순례단은 거창 가조면에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의 환대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나와 응원과 격려를 보낸 것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결사를 주도한 자승 스님과 순례에 나선 사부대중에 감사의 마음을 전

이상기온 극복, 안전사고 예방 만전

지원단 뒷바라지가 순례 성료 큰 힘

지난 자비순례와 달리 이번 삼보순례는 대부분 국도로 순례가 진행됐다. 인근 공단을 오가는 트럭 등으로 진행팀과 안전팀의 긴장도 높았다. 순례단 행렬은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차로 에스코트 하고, 앞뒤로 동국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팀에서 행렬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팀은 도보로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순례단을 보호했다. 순례 구간에는 도로공사 중인 곳이 많고, 주변 산업공단에 출입하는 트럭들이 지나가기에 안전팀은 연신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행렬을 통제했다.

권영섭 안전팀장은 "더 많이 뛰어다니고 있다.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순례는 이상기온으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됐고, 종반부에는 급격한 기상악화로 비와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25~27도를 오가는 날씨는 순식간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이런 순례단 곁에는 지원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순례단이 지칠 때면 휴식지마다 물 등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장영욱 지원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단의 건강"이라며 "행사팀 숙영팀 공양팀 자원봉사팀 등 50여 명이 순례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순례단이 활용하고 남은 물품을 마을회관과 지역단체에 보시했다"고 소개했다.

휴식지마다 발이 아픈 이들과 다친 이들로 의료팀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명숙 의료팀장은 "치료를 받으시고 순례를 계속해나가는 모습에서 불자의 한사람으로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순례단 앞뒤에서 안전을 살피는 지원단.



송광사 입재식에서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순례단의 모습.



사성암에서 스토리텔링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순례단의 모습.



회주 자승 스님이 국사전을 참배하며 서원하고 있다.



순례 일정 중에는 화엄사 화엄제 등 사찰 문화행사도 열렸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는 순례단의 모습.



423km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 삼보의 존귀함에 발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회주 자승 스님이 맨발로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佛法僧 三寶’ 존귀함 알리고 중흥 초석 놓다

한다. 이 공덕으로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침내 아홉째 날인 10월 9일 순례단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당도했다. 동이트기 전 가조를 출발한 순례단은 홍류동 계속 물소리를 들으며 해인사에 들어섰다. 이날 27km의 길을 걸은 피곤함도 잠시 쉼없이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팔만대장경을 직접 참배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천리순례단의 원력과 정진을 치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부대중이 자연 속에서 함께 수행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했다.

해당QR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현대불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공’에 올라온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뉴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 열흘째인 10일, 해인사를 출발해 가야산을 내려와 경북 고령에 접어들자 가을이 성큼 찾아 왔음을 알리는 황금빛 들판이 순례단을 반겼다.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회향지에는 불자와 마을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순례 일일참가자들도 늘었다.

하지만 역경은 끝나지 않았다. 다소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 기대도 잠시 굵은 장대비가 순례단을 찾아왔다. 11일, 순례단은 순례 중 비를 만나 우중행선을 진행했다. 높은 산길을 걸으며 늦더위와 싸워온 순례단에게 갑작스런 비와 이어진 한파는 발을 무겁게 했다.

저마다 고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순례단에서는 웃음꽃이 폈다.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며 천릿길을 가는 도반들의 발걸음을 서로 가볍게 했다.

계속된 우중행선 중에 지역주민들의 따듯한 환대는 순례단에 감동을 선사했다. 12일 폭우를 뚫고 경남 창녕에 도착한 순례단에 현창 주민들은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보시하며 응원했다. 전원이 불자라는 마을주민들은 순례 소식을 먼저 듣고 새벽부터 나와 순례단을 반겼다. 마을의 시설을 내주는 따뜻한 모습에 순례단은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

13일 순례단은 백두대간 정맥 지류인 영취산자락을 넘어 부곡에 도착했다. 산자락의 도로는 인근 공단 차량 등으로 새벽부터 번잡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듯이 불교중흥 대장정 천리순례에는 순례로 걷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대중공사인 포교토크콘서트가 진행된 14일은 순례단의 지친 몸을 치유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날이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례단은 포교와 전법을 통한 불교 발전을 위해 대중공사의 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날 발제자 중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전략적인 포교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사찰의 포교 한계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한 포교전법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제안을 내놨다.

순례 종반부로 갈수록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15일 부곡을 출발해 밀양까지 29km 순례는 최단시간에 끝났다. 체력을 회복한 순례단은 새벽 일찍 순례를 시작해 사명대사 충절비가 안치된 표충비각과 홍제사를 참배하고 밀양시 인근에서 숙영을 진행했다.

16일 호국본찰 표충사에서는 표충사당에서 호국성사 앞에서 국난극복에 대한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호국음악제 등을 만끽했다. 이날 저녁에는 조별 자자도 진행돼 순례과정에서의 참회나 아쉬움 등을 털어놓는 자리도 마련됐다.

17일 순례단은 순례 최대 난코스로 꼽힌 사자평을 넘었다. 가장 어려운 구간임에도 가장 많은 일일참가자가 참여한 것부터 이번 순례의 의미를 알수 있는 부분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국장단은 3일 연속 참여했으며,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 40여 명을 비롯해 전국의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무명을 걷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듯, 정진을 거듭한 순례단 앞에는 드넓은 갈대밭과 떠오르는 아침 태양의 광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 사자평 칼바람에 흐른 땀이 식고 추위가 느껴질 때 쯤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은 직접 지게를 지고 따뜻한 찐빵을 날랐다. 사자평에서는 순례의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듣는 소리꾼 장사익 씨의 구성진 노래소리는 행선 중의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하기 충분했다.

사자평 정상에서의 잠깐의 휴식을 뒤로, 순례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순례단을 반긴 갈대들이 숙영지로 향하는 순례단을 배웅하는 듯했다.

사자평을 내려온 순례단 앞에는 이제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 참배 만이 남아있었다. 순례단 운집인 9월 30일부터 19일, 입재식부터 18일간 힘들었던 과정의 기억은 저멀리 사라지고 모두의 마음에는 환희심만이 가득했다. 취타대의 풍악 속에 순례단이 통도사 산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이미 연화장세계였다.

순례 과정에서 부르트고 찢어진 발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순례단의 간절한 모습에서 불교 중흥의 미래가 희망만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부처님처럼 길위에서 풍찬 노숙하며 정진한 이들에게 부처님 가피로 대자비한 꽃비가 장엄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는 수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사찰에서 순례에 관심을 갖고 동참한 것부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현장은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자리였다.

“인도순례까지 원력 다시 모으자”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기대 교차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7일 순례 회향을 하루 앞두고 자자회를 열었다. 16일 조별 자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자자회에서는 전날 조원들이 써 낸 순례 과정에서의 참회와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한 결의 등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3조 조장 법원 스님은 “한 분은 무릎에 물이 차고, 한 분은 근육이 찢어짐에도 대중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며 “한 분은 사찰의 일로 지자체장을 만날 일이 있는데, 회향 후 순례단 모자 등을 그대로 쓰고 만나기로 했다. 조원 전원이 상월결사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7조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장윤정 씨가 발표했다. 장 씨는 “저희 조 모두 삼보사찰 순례에 참석하게 해주신 회주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말로 안 해도 느껴지는 자상한 마음,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마음 등이다. 이번 순례로 인하여 순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 인도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5조 조장 지해 스님은 “우리 조원들 모두 포교 원력 살아났다는 말을 했다. 긴장과 참회와 발원이 교차하는 순례”라고 평가했다. 지해 스님은 “조원들이 혼자 걷지만 함께 가는 길임을 느꼈고, 앞이 흐리다고 생각했던 불교가 삼보순례 천리순례길로 미래가 밝게 보인다”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따르자”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노덕현 기자



자자에서 참회와 기대를 표하는 스님.



갑작스런 비에 우의를 입고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우중에도 행선을 이어간 순례단이 불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가을 들판을 순례단이 걷고 있다.



부곡에서 포교토크콘서트로 대중공사가 진행됐다.



통도사 금강계단 사리탑을 탑돌이하는 순례단.

‘사심사관’ 코로나시대 정서불안 소멸 해법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10월 16일 학술대회 개최

코로나19시대 불교적 해답 제시
실체와 인식한 마음의 대상 달라
무상함으로 근원적 통찰 ‘마음변화’
‘사심사관’ 심리학 ‘탈중심화’ 유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과 은암문화재단이 10월 16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학술대회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안환기 교수.

“유식학의 사심사관은 코로나 시대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심사관은 인식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여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양심리학인 탈중심화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마음의 이미지와 표현하는 언어가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사심사관은 불안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과 은암문화재단(이사장 신공)은 10월 16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학술대회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개최했다.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정서불안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불교적 해답으로 유식학의 사심사관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사심사관은 ‘명칭이 붙여진 인식의 대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며 “사심사관에서 사(事)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사(事)를 해석한 생각과 감정에 이름붙이는 의식작용을 관한다. 현실과 이를 해석한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통찰하는 점은 탈중심화와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 자체와 해석한 생각 그리고 정의하는 언어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통찰로 마음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1주제 ‘펜데믹에 대한 초기불교적 대응’을 주제로 김한상 동국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2주제 ‘코로나19, 불교적 해석-정서불안, 사심사관, 탈중심화를 중심으로’는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3주제 ‘역사 속의 전염병과 불교의례’는 강호선 성심여대 교수가, 4주제 ‘코로나 시대의 불교포교의 활성화 방안’은 김영미 동국대 교수가 발표했다. 각 발표에 대한 논평은 우명주 교수(동국대), 김명우 교수(동의대), 윤종갑 교수(동아대), 신경스님(동국대)이 담당했다.

‘펜데믹에 대한 초기불교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한상 교수는 명상과 경전 빠릿따 암송 그리고 자애와 연민을 코로나 시대의 대응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계와 환경은 심리의 반영이다. 자애와 연민에 기반해 도성제인 중도를 실천하는 길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궁극적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체계적 연구를 위해 2011년에 창립됐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시대과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야학술상 시상을 통해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안 스님과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그리고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지안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아픈 중생을 위해 약을 주시는 마음으로 법문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격려했다.

신공 스님은 “코로나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이처럼 시기적절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난국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관광지에서 ‘기도수행도량’으로”

해동용궁사 9월 9일 화엄사 말사 등록
주지 연규 스님 10월 20일 간담회 열어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였습니다. 앞으로 해동용궁사는 동해 최고의 기도수행도량으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부산 해동용궁사가 9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했다. 주지 연규 스님<사진>은 10월 20일 경내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말사 등록을 발표하고, 화엄사 말사 등록을 계기로 해동용궁사가 불도(佛都) 부산에 어울리는 신심증장의 도량으로 탈바꿈할 것을 밝혔다.

연규 스님은 “수행처는 수행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불자들이 도량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수행처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재정비하고 정기법회를 통해 불법의 전령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매년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호국도량의 역할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불교계와 협력하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전했다.

스님은 “아시겠지만 해동용궁사는 개인사찰이었다”며 “이제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하고 첫 출발을 맞았다. 지역민과의 소통도 잊지 않을 것이며 범어사를 비롯해 부산불교계와 소통하고 포교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사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1999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주지, 향일암 총무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이날 우하람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훈련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우하람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부문 국가대표 선수이며 다이빙 불모지인 한국에서 다이빙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안사 인근 산폐단지 사업 ‘폐기’

부산시 10월 12일 기장군에 사업접수 취하 공문발송

장안사, 철회 환영 간담회 열어
“뜻 모아준 장안읍 주민께 감사”
장안로 ‘장안사로’로 변경 추진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승인이 정식 철회됐다. 부산시는 10월 12일 기장군에 공문을 보내 사업접수가 취하되었음을 알렸다. 장안사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뜻을 모아 준 장안읍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기장군의 환경보호와 도량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간담회에는 주지 무관 스님을 비롯해 김성국 장안읍주민자치회 위원장, 김정대 장안읍이장협의회 회장, 박태현 (사)장안읍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무관 스님은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당시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이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철회는 주민들과 불교계가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다. 수행도량 수호를 위해 함께해준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성국 위원장은 “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언론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장안사는 이곳 주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정한 기장군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소원이 담겨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장안읍은 이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철회를 계기로 장안사의 사격을 더욱 높이기로 결의하고 장안로(長安路)를 장안사로(長安寺路)로 명칭을 변경한다. 장안사로는 장안사를 시작으로 부산 기장 기룡리 454-3번지에 위치한 동부산관광호텔까지 총 4.5km이다. 장안읍은 다가오는 10월 29일 마을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주사,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문화제 성료

괘불탱화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등 열려

창원 천년고찰 성주사(주지 법안)가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산사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산사문화제는 성주사의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성주사는 먼저 10월 15일 ‘오여래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오여래 괘불탱화’는 가로 6미터, 세로 9.5m 규모이며 금어 정로 스님의 작품이다. 점안식에는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 주지 법안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김이순 신도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주사는 점안식과 함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인 불모산영산재를 봉행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16일 개최했으며 불교의 전통 의식인 예불을 시작으로 금관 5중주단 연주, 신비의 크로스오버 공연, 경남리틀싱어즈의 무대 등이 열렸다. 아울러 전시를 비롯해 체험 부스를 마련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조실 흥교 스님은 “괘불탱 점안식을 통해 여러 모든 대중들이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마음의 힘으로 희망을 향해 정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다섯 분의 부처님 조성 점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회복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을 의지해 수행 정진한다면 부처님의 법향이 만방에 드날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창원포교당 ‘극락보전’ 봉불식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법본)가 10월 21일 법당에서 극락보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봉불식에는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부산불교대학 학장 범혜 스님, 등명불교대학 부학장 천산 스님, 황규종 의창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법본 스님은 “2년 전, 안국사 주지 소임을 맡아 행사용 천막 하나에 부처님을 모시고 또 다른 천막에 저의 책과 짐을 넣고 노숙하며 불사를 시작했다”며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력으로 안국사가 세워졌고, 오늘 1층 극락보전에 아미타부처님을 모셔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 안국사는 부처님법을 잇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아울러 불지종가 통도사의 정신과 문화와 가풍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어사 ‘문화의 종(鐘)’ 타종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10월 1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종각에서 ‘문화의 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문화의 종’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앞에 위치한 종각에 봉안됐으며 범어사 선문화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법음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선문화교육관, 시민을 위한 템플스테이관 그리고 개관을 앞둔 박물관이 있는 불교문화공간이다”며 “‘문화의 종’은 중생의 마음을 새롭게 할 ‘정신문화의 종’이다. 종소리가 사바세계 만방에 퍼져 우리의 정신문화를 정화하길 바라며 부산시민이 이곳 문화공간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무료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하고 무료입장하세요

2021.11.11(목) ~ 11.14(일)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

2021.11.11(목)-11.14(일)

S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사전등록 바로하기>

우측 QR코드를 핸드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사전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슬로건 |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
2021 주제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Green Life
누리집 주소 | www.bexpo.kr
접수 문의 | 02.2231.2013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 접속 www.bexpo.kr 또는 큐알코드 스킨 > ‘온라인 사전등록’ 클릭 > ‘사전등록 신청하기’ 클릭 > 내용입력 > 등록완료

*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사찰, 단체는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2021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됩니다.

02.2231.2013 | www.bexpo.kr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화재청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Hansol 한솔PNS

〈부모은중경〉 복각 원력 승보공양으로 회향

전주 금선암, 10월 17일 보은법회

교구 승려복지기금 1억원
정각복지센터 기금전달도
불자효행상 등 시상 · 지원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이날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에게 교구 승려복지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중창주인 금화당 초안 스님의 유품인 전북유형문화재 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복각을 기원하며 원력을 승보공양 등에 회향해 훈훈함을 전했다.

전주 금선암은 10월 17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복각 기원 및 보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부모은중경〉 독경과 〈보배경〉 낭독, 경과보고, 봉정, 복지센터 후원금 전달 및 효행상 시상식, 제17교구본사 승려복지기금 전달, 축사, 승보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무주 백련암 주지 평상 스님, 영진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등 스님들과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여사, 김희수 전북도의원, 안준아 신도회장, 김용수 전북포교사단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여법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봉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각본〉은 금선암 중창주인 금화스님이 평생 소장한 유품으로, 탄신 100주년을 맞은 2020년 문화재 신청을 통해 전북무형문화재 270호로 지정됐다.

금선암은 문화재의 영구보존을 위해 복각불사를 진행해 왔으며, 총 14판본 중 3본을 완성하고 이날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때문에 이날 법회는 목각본 3본의 봉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나머지 11본에 대한 복각불사를 원만회향하는 발원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선사측은 2022년 중 복각을 회향한다는 목표다.

이날 법회에서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에게 제17교구본사 승려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익산 정각사 정각복지센터 일행 스님에게도 후원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임승원 불자에 대해 효행상을 시상하는 한편, 교계 언론인들에 대한 격려상 시상도 이어졌다.

금선암 마당에서는 이날 참석한 대덕스님들에게 금선암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승보공양 법회가 진행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중창주 금화당 스님의 유품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가르침과 금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잊혀져 가는 효행사상을 기리기 위해 복각불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효행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그 일환으로 17교구 승려복지기금 전달과 정각복지센터 후원금 전달, 효행상 시상을 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의미를 전했다.

법석에 함께한 스님들의 치사도 잇따랐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모은중경〉 복각은 주지 덕산 스님의 서원이자 중창주 스님의 유지"라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부모님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기를, 또한 효도를 다하고 마음을 편안케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17교구 승려복지기금의 전달은 금산사 교구 승려복지의 발전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님들의 가장 큰 걱정인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치하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효행은 불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오늘을 계기로 효행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금선암 대중이 쾌적한 승려복지기금을 바탕으로 금산사 말사와 재적스님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모으고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노후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스승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갚으며 수행하리라 서원했었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며 덕산 스님의 수행과 불사의지를 보며 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졸업 20년 맞아 후배스님 위한 장학금

송광사 12기 동문스님
강원에 기금 1000만원



20년 전 강원을 졸업한 선배 스님들이 후학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 강원 12기 동문들은 10월 20일 졸업 20주년을 맞아 강원 후배인 학인 스님들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한 졸업 동문은 법오 스님과 보각 스님, 보원 스님, 설각 스님, 연광 스님, 정산 스님, 화진 스님 등 7명이다. 스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학 연찬과 후학 양성에 애쓰시는 강주스님과 강사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인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 한국불교를 위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송광사 강원 9기 졸업생 본연 스님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해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영가 합동천도법회

10월 14일 중양절 맞아



해인사 원당암이 10월 14일 중양절을 맞아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천도법회는 9일 기도 회향을 맞아 경내 보광전과 만년위패가 모셔진 원당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보광전에서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상단헌공, 봉송 등으로 이어져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한 인연들은 선망부모와 인연영가,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 발원을 위해 본래 마음자리 바탕에서 금생에 내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며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에 끄달리지 말고 내 마음 자리를 깨닫고 복을 많이 지어, 응당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부처님법을 굳게 믿어 생사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을 산사서 생명나눔 선율의 향연이 펼쳐지다

불암사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산사음악회

10월16일 특별무대서
일면장학금 수여식도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짝짝짝"

10월 16일 오후 5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 경내서 마련된 특설무대서 신인가수 김선준씨가 하얀색 양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상하이 트위스트' 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율동과 함께 흥을 돋운다. 이곳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마련한 '제 13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현장이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속에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일면장학금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인 스님과 불자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면장학회는 이날 행사에서 학인 스님 10명, 학생 10명 등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9세 환아에게 300만원의 치료비 지원 전달식도 가졌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공로로 이현진 트롯 투표-리매치 대표에게 생명나눔 유공장이 수여됐다. 또한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사람사회공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 대구지역본부장 미수 스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심산 스님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법인 발전기금으로 법인 이사이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500만원을, FC생명나눔 축구단장이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추성호 부회장이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나눔 음악회는 단순한 문화공연을 넘어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되는 자리이다. 앞으로도 장기기증문화 및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불암사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행사 뒤에는 법인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명선화)'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시작으로 가수 주권기, 강혜연, 윤태화, 황우림, 배아현 등이 열창하며 무대를 후끈 달궜다. 그 열기는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남양주 불암사=김주일 기자

천도의식으로 위안부 피해자 넋 위로

광주영산재보존회,
10월 20일 광주시 지원으로
영가 극락왕생 · 평화발원해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가 10월 20일 법륜사에서 봉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대표 월인)는 10월 20일 광주 서구 법륜사(주지 월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를 개최하고, 희생된 영가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수자 월인 스님, 호산스님(광주 세심정사 주지)을 비롯해 보존회 10여명과 광주 서구청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가를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과 상주권공과 바라춤, 나비춤, 권공, 축원, 시식 등이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근로자, 그리고 당시 수많은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로 진행한다"며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연산재보존회는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의 지원으로 올해 5회째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를 지속적으로 봉행해 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보명당 석원정

총무원장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총무원장 석자운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육원장 석도관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부원장 석서정 법계고시원장 석유심 사서실장 석법성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김영길, 심규명,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H·P 010·3565·2462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0~10/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딱돌 해설서	중암 선해	금빛소리
2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	7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종출판사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9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젠 토머스	모네정원
5	프리스틴 마인드	올걘 초왕 린포체	운주사	10	도해 화엄경	용수보살	부다가야

책세상

불교음악 원류는?…"불교문화 이해하는 핵심코드"



세계불교음악순례
윤소희 글 · 사진
운주사 펴냄
2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만 불광산사 수륙법회 회향의식 장면. 장엄한 불교의식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운주사 제공

세계 각국 불교(의식)문화 담은 순례기
불교음악의 현황과 실행, 특징 등 조명
20년 이상 세계 곳곳 누비며 찾아 기록

이 책은 이론과 실제가 어긋나는 우리 범패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불교음악의 원류를 찾아 떠난 학문적 탐구의 과정이자 세계 각국의 불교(의식)문화를 담은 순례기이다. 저자는 오직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현장감, 귀중한 사진 자료들을 통해 생생히 전달한다.

대부분 종교에서 사용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불교가 전래된 주요 국가들에서의 불교음악의 현황과 실행, 특징, 의미 등을 현지의 역사와 삶, 환경 등과 통섭하여 풀어낸다.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는 의식(의례)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다. 의례의 해석이나 형식을 두고 생각보다 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이다. 의례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보통 범패라고 부르는 불교음악은 불교 법회나 의식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불교의식(의례)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불교음악을 이해하는 일은 그 나라의 불교의식 나아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코드이기도 하다.

불교음악(범패)은 부처님 설법을 원음으로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해 전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운율과 형식이 발생, 발전했다. 그리고 불교가 전래한 각국의 상황, 즉 사회문화, 자연환경, 전통사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변화했다. 이웃해 있으면서도 의외로 다르고, 반대로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이면서도 비슷한 불교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아오면서 불교전통의 많은 부분이 단절되었고, 이어지는 일본의 지배 하에서 왜곡된 불교가 강제되면서 제대로 전통을 복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불교의식서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의식으로 인해 근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되거나 세속화 됐다.

이 책은 우리의 잃어버린 불교음악의 진면목을 회복하고자 불교음악의 원류를 찾아 세계 각국을 찾아다닌 구법여행기이자 음악인류학자의 탐구 여정을 담았다.

제 1장은 그 역할과 구조, 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종'에 대한 이야기이다. 종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차적 용도 외에 종교적 메시지나 감화를 위한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가 30여년 동안 기록하고 모은 세계 각국 다양한 종의 세계가 담겨 있는데, 종교와 문화, 민족마다 다른 울림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제 2장에서는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한국 등 한자문화권에서의 불교의식과 범패를 만나볼 수 있다. 언어 발성 자체를 수행 도구로 삼던 인도 범어가 중국서 뜻글자로 전환됨으로서 본래와 다른 음악문화를 생성했는데, 이는 의례와 율조를 통해 드러난다. 이렇듯 이 나라들은 한문이라는 언어적 공통분모 위에 각국의 전통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색깔을 입혀 불교음악을 변형, 토착화시켰다. 이 책에서는 이들 나라 불교음악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광대한 권역을 가진 티베트 불교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티베트 곳곳의 불교 풍속은 물론이고 깐수성 라브랑스의 정월의례와 '참', 라사서 행해지는 불교 창극 아체라모, 즈쿵사원 조장터의 체험, 북인도 라다크의 헤미스곰파 참의식, 다람살라 인근 따시종 캄파카곰파의 밀의密儀 악가무, 불탄 성지 룸비니, 카트만두의 티베트 불교사원까지 티베트 불교음악 및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제 4장은 찬팅 율조 자체가 범패라고 할 수 있는, 초기불교 전통의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 빠알리 문화권의 불교의식과 범패를 보여준다. 즉 "남방에는 불교의식이 없으므로 의식음악이 없으며, 출가자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계율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불교의식이나 음악은 만날 수 없다. 하지만 2천 년 넘게 지켜오는 구전과 합송의 전통은 그 어느 율조보다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온다.

한편 스리랑카의 호리나와(태평소) 가락에 등장하는, 상모를 돌리며 양면북을 둘러메고 치는 타악기는 동아시아 3국 중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고 한국서만 볼 수 있다는 점도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새겨볼 점이 많은 대목이다.

제 5장은 각국의 토착문화와 불교음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됐는가를 다룬다. 특히 세계 3대 불교유적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버강,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의 유적에 남겨진 불교음악의 흔적을 더듬어보는 일은, 이들 유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관심을 갖게 해준다.

한편 '딴따라'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티베트 불교의 '나팔을 불며 행하는 요란한 밀교의식'을 이르는 '딴뜨리즘'서 유래한 말인데, 대중가수나 밤무대 악단을 '딴따라'라고 했던 데에는 조선조 이후 불교를 비하해 온 배경이 있음을 인류학으로 풀어낸 이야기도 흥미롭다.

오전 10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지'는 부처님 당시 일상이었고, 오늘날 남방 승단의 일상생활이다. 나무막대 등을 두드려 대중에게 신호를 보내던 타주도 한국에 이르러 의례가 되었다. 초기불교의 일상이 의례가 된 것이다.

이렇듯 모든 의례와 의식 행위에는 그 근원이 있다. 따라서 한국 불교음악의 올바른 복원과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근원에서 되돌아보고 의미를 새겨보아야 한다.

이 책은 세계 각국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는 불교의례와 불교음악, 나아가 불교문화를 폭넓게 보여준다. 특히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오로지 그 순간에만 포착 가능한 의식과 음악의 장르 특성상, 그 현장을 온전히 포착해 기록하고 전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며, 이 책에는 20년 이상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불견불필(不見不筆) 불청불필(不聽不筆)=보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의 귀한 정보와 사진들이 가득하다.

불교음악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불교다운 음악과 수행자의 음악은 어떠해야 하는지, 불교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은 물론이고 불교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게 하는 기나긴 여정의 기록이다.

▲저자 윤소희는?

부산대 한국음악학과서 작곡을 전공하고, 한양대 음악대학서 음악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 · 동국대 등 다수 대학교에 출강했고, 위덕대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원상 특별상, 반야학술상 저술상, 묘엄불교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내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작곡과 음반 발매 등 폭넓게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문화와 음악〉 〈문명과 음악〉 〈범패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한 · 중 불교음악 연구〉 〈영남범패 대담집〉(공저) 등이, 논문으로 〈대만불교 의식음악 연구〉 〈티벳 참무를 통해 본 처용무와 영산재〉 〈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 〈불교음악 연구의 좌표와 지평〉 〈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 · 중 · 일 율조비교〉 외 다수가 있다.

〈윤소희 카페〉(http://cafe.daum.net/ysh3586)에서 좀 더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함께 나눈 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신심과 공덕으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삼보예경과 순례의 의미가 조화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신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사부대중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만행만덕으로 장엄해주신 화엄사와
호국의 자긍심을 전해주신 표충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포교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그리고, 순례길을 열어주신 여러 사찰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몸소 행해주신 중앙종회 여러분과 봉사 헌신해 주신 동국대학교와 포교신행단체,
그리고 지역마다 지극하게 협조해주신 관공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굽이굽이 지나온 길마다 차가운 날에는 따뜻한 물을
햇살이 따가운 날에는 선선한 그늘을,
비가 오는 날에는 삶의 터전을 선뜻 내어주신
길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은 회향의 길을 밝혀주신 등불이었습니다.

공양과 봉사로 힘을 보태 주신 분들,
후원과 공양금으로 용기와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
더없는 공덕과 평생 이루어 오신 삶의 터전을 받은 것이기에
힘을 내어 중흥과 극복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원하고 감동한 그대로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상월결사는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으로 한걸음 나아간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의 정진에 원력과 신심의 바탕으로 삼아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춤 승무로 法 나누는 공양의 무대

'2021 정해림 찰나의 자유' 공연

11월 13일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살풀이춤과 승무(이매방 류) 완무 펼쳐
법우들과의 약속 지키는 춤공양의 무대
이례적 완무 연습과정 정진의 시간으로
동래한량춤 · 산조춤 · 설장구놀음 공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승무의 완무를 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 류)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인 정해림은 11월 13일 오후 3시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봉래홀에서 '2021 정해림 찰나의 자유'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정해림은 승무와 살풀이춤 독무를 선보이는데 승무를 완무한다. 판소리 '완창'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승무의 완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해림에게 있어서도 이번 승무 완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5분이 소요되는 승무 완무는 흔히 볼 수 없는 공연으로, 정해림 씨는 이번 완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곧 정진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춤을 추고 있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며 힘겨움을 춤과 수행으로 완성했다. 결국 관객들이 만나게 되는 정해림의 25분 동안의 승무는 25분이 아니라 250분, 아니 그 이상의 '정해림'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무라는 이름의 춤은 '승무'라는 이름을 빌어 함께 나누는 법(法)인 것이다.

"부처님법으로 살아가면서 수행의 방편으로 전통춤을 추고 있는데, 저에겐 춤이면서 수행의 방편인 그 춤을 언젠가는 꼭 법우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인 정해림은 정기법회 때 각자의 신행담을 발표하는 '봄 이야기' 시간에 자신의 신행담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언젠가 법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춤공양을 올리겠다는 발원과 약속을 했다. 발원과 약속이 간절했을까. 정 씨는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됐고 '공연예술' 개인자격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자신이 마음을 밝히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이끌고 응원해준 스승과 법우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공양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저에게 연습이란 머물러 고정됨이 없게 하는 아만, 아상을 내려놓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몸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몸을 다스리니 찰나를 경험케 하고 찰나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조우합니다. 좀 더 자유로워짐으로써 나 자신과 남에게 이로워진다고 여기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해림 전수자의 승무와 살풀이 독무 외에도 조도근의 동래한량춤(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김현임 · 지영숙 · 강미선의 산조춤(김진홍 류), 추임새국악예술단의 판굿과 여성연희그룹 풀빛의 설장구놀음이 이어진다.

승무는 1964년 중요문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불교적 정서를 몸짓으로 풀어내는 독무인 승무는 한국무용의 정수인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원(舞員)의 복식은 대개 날렵하게 걷어올린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흰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수했으며, 양손에는 북채를 든다. 북을 향하여 관객을 등진다든지,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등은 승무만이 가진 멋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속예술 대부분이 그 연원과 유래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듯, 승무 또한 연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 연원과 유래의 여러 설이 분분하다. 전해오는 여러 설 중에는 조선 중엽 이후 승려 서산에 의해 포교의 한 방법으로 승무를 승려의 필수 일과로 중시한 뒤 더욱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그 뒤 운수승들이 승무를 탁발 수단으로 이용해 종교적 의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금지된 이후 민간으로 내려와 민속무용으로 변모하게 됐다는 설이 있다. 승무의 아름다움은 정면을 등지고 양팔을 서서히 무겁게 올릴 때 생기는 유연한 능선과 긴 장삼을 공간으로 뿌리는 춤사위와 하늘을 향해 길게 솟구치는 장삼자락, 비스듬히 내딛고 미끄러지듯이 내딛다가 날아갈 듯한 보법이다.

자진모리와 당악 장단에 맞추어 시작하는 북의 연타는 주술적인 힘을 발하여 관객을 춤 속으로 이끈다. 북소리가 멈추면 다시 긴 장삼이 허공에 뿌려지고 연풍대가 있은 후 어깨춤과 사뿐한 걸음에 합장으로 춤을 맺는다.

승무는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며 전승되어 왔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00년 이후 한성준의 노력으로 예술화한 경기 · 충청 지방의 승무와 이대조에 의해 발전된 호남 지방의 승무가 있다. 한성준의 승무는 한영숙에게, 이대조의 승무는 이매방에게 전승되어 한영숙류와 이매방류로 나뉜다. 한영숙류는 이애주와 정재만 등이 계승했으며, 이매방류는 채상묵 등이 계승했다.

정해림의 승무는 이매방류로서 고난도의 기술과 기법을 통달하고 민족 문화적 정서를 담아내야 완성할 수 있는 춤이다. 힘과 신명이 충만한 춤사위와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 매서운 발디딤, 호화로운 장삼놀음, 세차고 현란한 북가락은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린다. 세속적 고뇌와 잡스러운 망념을 걷어내는 것 그리고 삶의 기나긴 여정을 풍요롭게 승화시키려는 정신세계가 함축되어 있다.

정해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이다. 2019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춤모임 '짓'에서 활동했다. 김은이, 김진홍, 이매방, 김명자 전통춤 공연에 다수 출연했으며 여섯 번의 개인 공연을 개최했다. 현재는 일지전통예술단 대표이며, 여성연희그룹 '풀빛' 단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 류)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매방 류) 전수자인 정해림.

제17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김광현 作, 십일면 42수 관세음보살

10월29일~11월5일 남양주 봉선사
이영길, 한봉석 등 회원 29명 참여
'관세음보살' 등 조각과 공예 작품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이영길)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제17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통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이영길, 한봉석, 송근영, 조병헌, 이재순 등 29명의 회원이 참여해 '목조미륵반가사유상', '환희', '관세음보살', '모란 꽃살문' 등 불교 관련 조각과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전통조각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보수와 재현에 힘써온 조각 장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이영길 회장은 "전통기법을 계승하여 현대에 반영시켜가는 작업은 길고 어려운 일이나,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절임에도 시간을 쪼개어 작품을 준비하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은 민중들의 적극적인 불사 동참과 신심 있는 장인을 만나 찬란한 문화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그 중심에서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며 "화려한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가을 봉선사에서 아름다운 불교미술을 만나는 금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고 축하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찰마다 각기 다른 장엄함과 기능적 차이들을 보고 느끼며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미술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며 "무사히 작품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고 격려했다.

1986년에 창립된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35년이라는 세월동안 격년제로 작품전을 열면서 조각 · 공예 분야의 전통과 예술적 역량을 발전시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국가 · 지방 지정문화재를 많이 배출하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국내 정상급 전통조각 장인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재 조각의 전승 및 새로운 전통의 창달을 위하여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지는 법당소리

2천여 사찰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2천여 사찰시설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현장설치가격포함 ₩ 8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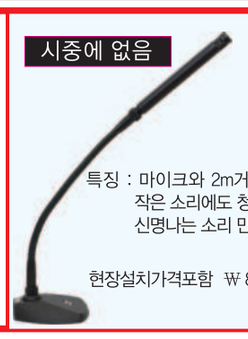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대행사상, 인문사회 · 자연과학으로 논하다

한마음과학원, 10월 16일 제6회 학술대회 개최

글=신성민 기자, 사진=김주일 기자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10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사상과 한마음과학' 을 주제로 제6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인문 · 사회 · 자연과학의 연구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정상만 한마음과학원 회원은 '켄 윌버와 대행 선사의 수행방법론 비교 연구' 를 통해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켄 윌버의 사상과 대행 선사 가르침의 면면을 비교 · 고찰했다.

정 회원에 따르면 켄 윌버는 여러 종교적 전통에서 추천되는 다양한 영적 수행 방법들을 직접 수행해 왔다. 여러 수행 전통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영적 스승은 인도의 힌두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로, 켄 윌버는 그로부터 수용한 자기 탐구법을 수행법으로 삼았다.

반면, 대행 선사는 외부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 수행체험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고 주인공 관법을 제시했다. "깨달음에 도달한 방법은 다르지만, 그 궁극의 자리에 대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개최돼
켄 윌버 · 대행선사 면면들 비교
선법가 일상 속 수행 가능 증명
기본소득, 五空 사상으로 해석도

설명은 서로 통하는 면이 많다"는 게 정 회원의 설명이다.

그는 " '이 뭣고' 화두와 유사한 마하리쉬의 자기 탐구법과는 달리 대행 선사는 아직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는 자력수행의 전통에서는 독특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인 내맡김을 필요로 하는 주인공 관법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행 선사는 이미 자신의 수행체험을 통해 그 수행법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만 한마음과학원 회원이 10월 16일 열린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 를 발표한 박소진 신한대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선법가가 일상 속 수행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 눈길을 끌었다.

선법가는 대행 선사의 게송에 전문음악가들이 곡을 붙인 노래로, 박 교수는 문헌조사 · 심층인터뷰 · 온오프라인 참여관찰을 통해 선법가로 불교적 수행이 가능했음을 확인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마음선원 선법학창단원과 일반 신도들은 선법가를 듣고 부르는 실천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교과서' 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선법가를 듣고 부른 신도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선법가나 선법가 구절을 떠올리며 생활 속 수행의 실마리를 찾았다.

박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생활 신행과 관련된 현대 불교음악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법가가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수행의 방편' 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불교음악 속 선법가가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한마음과학원 회원은 '지속가능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연구' 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한 방안으로 대행 선사의 오공(五空)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생권 시장' 의 개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회원은 기본소득제의 한계로 지속적인 재원 조달과 노동 공급 감소, 인플레이션 등을 제시하며 '공생권 시장' 과 '지분권 제도화'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공생권 시장' 은 공생 서비스(노동) 수요자(기업, 정부 등)들은 임금을 공생권으로 지급하고, 공생 서비스 공급자(노동자, 학생, 주부 등)는 시장에서 공생권 지분을 매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개인의 공생권 지분은 사망 시 자연 소멸해 상속이 없고, 보유 상한을 둬 부의 편중을 막도록 했다. 공생권 시장을 통하면 "기업 지분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처럼 공생권 지분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는 게 박 회원의 설명이다.

박 회원은 "공생권 지분이 국민주주제처럼 적절히 사회 구성원에게 배분되고 노동시장과 연결돼 '지분건 거래소 시장' 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포괄적 경제 핵심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공생' 으로서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 '대행 선사에 있어서 연구의 개념: 한마음 연구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김영래, 한마음과학원) △ '교사 교육 개선에 관한 담론 고찰' (안정현, 공주대) △ '천체물리학 관점에서 연구한 대행 선사 과학 법문과 한마음 과학' (최상욱, 한마음과학원) 도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1999년 10월 10일 대행 선사가 심성과학연구원 법회에서 설한 법어를 음성으로 들었다.

한마음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에서 "대행 선사께서는 '우리 지구는 지금 마음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함께 한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고 하셨다"면서 "이렇게 한마음과학원, 대행선연구원에서 한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이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사부대중의 한마음 정진이 지속된다면 대행 선사께서 당부하신 영원한 지구 보존의 바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줌으로 진행했으며, 한마음과학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 현장 청중은 사전 참가 접수 예약을 받아 인원을 제한했다.

"원효 · 혜초, 평택 거쳐 구법행…선양 필요"

평택사암聯, 10월 16일 학술대회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서
'평택역사문화로드' 주제로 진행

1400년 전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가 10월 16일 수도사(주지 적문)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개최한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대회장 이평래)' 는 원효대사를 비롯해, 과거 평택지역을 거쳐 깨달음의 길에 나섰던 구법승들의 여정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원효대사가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해 당나라로 향했는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라 구법승 중 그 행로가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지는 인물로, 그에 준하는 현재의 지역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수많은 구법승들의 여정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평택사암연합회는 10월 16일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서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날 발제자들은 여러 기록을 근거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혜초대사를 비롯한 구법승들이 당나라로 향했던 '당항진' 의 위치가 현재의 평택인 것으로 봤다.

'원효의 구법행로에 대한 연구' 를 주제로 발제한 김경집 인천시 문화재전문위원은 "신라 대당해로의 출발지인 당항진은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던 경로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기록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지금의 평택시 포승읍 일대로 비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삼국시대까지 당항진으로 불렸던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은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이는 명칭변경 혹은 새롭게 항구를 건립했기 때문"이라며 "두 경우 모두 당은포의 위치는 현재 평택시와 접해있는 바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해로설을 주제로 발제한 김규현 티베트연구소장도 '당나라로 가는 포구' 당나루의 위치는 현재의 평택 · 당진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더해 순례길 혹은 조형물을 통해 평택시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는 '원효길의 역사문화적 상징과 의미' 주제발표에서 "원효대사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수도사의 '평택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과 평택호예술공원을 연결하는 '원효길' 의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을 주제로 '원효길' 재현의 가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은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원효대사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건립해 생명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는 평택시민들의 자긍심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평택의 가치를 자연스레 알려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연등회 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국립무형유산원, 10월 18일 영상콘텐츠 제작 · 공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기원인 '빈녀난타품' 을 영상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10월 18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휴(休), 무형유산' 을 통해 무형유산 영상 콘텐츠 5편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영상 콘텐츠 중에는 연등회의 기원 설화인 '빈녀난타품' 이 담겼다. 〈현우경〉에 수록된 '빈녀난타품' 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먼 훗날 성불하리라는 수기가 담겼다.

난타는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구걸해 한 푼을 얻고, 이를 기름으로 바꿔 불을 밝혔다. 며칠이 지나고 다른 등불은 꺼졌지만, 난타의 등불은 꺼질 줄 몰랐다. 의아하게 생각한 비구들이 연유를 묻자 부처님은 "저 등불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비심을 낸 사람이 공양한 것이어서 꺼질 수



없다"면서 난타에게 먼 훗날 등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렸다. 이는 '가난하면서도 남을 위해 보시하고 자비심을 내는 숭고한 태도' 를 의미하는 '빈자일등(貧者一燈)' 의 사자성어의 유래이기도 하다.

'빈녀난타품' 영상 콘텐츠는 그림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수어 해설 영상도 담아 청각 장애인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9

▶ 40회 예고
라다굽따 특사일행이 웃자인을 떠나기 전날 환송연을 연다. 베디샤데바와 데비도 환송연에 초대를 받는다. 아쇼까는 연회장에 있는 베디샤데바와 데비를 접견실로 따로 불러 청혼한다. 데비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우데나왕, 적국 왕의 딸을 왕비로 삼다

짠다빳조따왕이 우데나왕에게 대드는 전옥관리를 만류한 것은 다분히 계산적이었다. 우데나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면서 코끼리 부리는 주문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왕의 자존심을 버린 채 우데나왕에게 삼배를 하면서 배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짠다빳조따왕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나에게 삼배를 하라니 웃기는군. 난 절대로 삼배를 할 수 없소. 그대는 삼배를 받을 수 있는 붓다가 아니오."

"그럼, 나도 절대로 코끼리 부리는 주문을 가르쳐줄 수 없소."

"별 수 없군. 나는 그대를 처형하겠소."

"내 영혼까지 처형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우데나왕은 붓다에게 죽음에 대한 설법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당황하지 않았다. 붓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설했던 것이다. 짠다빳조따왕의 심복인 우두머리 전옥관리가 짠다빳조따왕에게 귓속말을 했다.

"폐하, 우데나왕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폐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데나왕에게서 주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그렇소. 그런데 우데나왕이 주문을 배우려면 나에게 삼배를 하라니 난감하오."

"폐하, 적국의 왕에게 삼배를 한다는 것은 치욕이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이 전옥관리에게 중얼거리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 딸 와술라닷따에게 주문을 배우게 한 뒤 내가 딸에게 배우면 어떻겠소?"

"폐하, 묘수입니다."

잠시 후, 짠다빳조따왕이 우데나왕에게 제의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삼배를 한다면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왕의 체통이 있을 것이니 친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소."

짠다빳조따왕은 딸 와술라닷따를 꼽추라고 둘러댔다. 우데나왕이 와술라닷따에게 음심을 품을까봐 꼽추라고 거짓말을 했다. 와술라닷따는 부모 말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고분고분한 여자였다. 짠다빳조따왕은 딸에게는 우데나왕이 문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순진한 딸이 우데나왕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짠다빳조따왕은 딸에게 가서 말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어떤 문둥이가 코끼리 다루는 주문을 알고 있단다. 너는 커튼 뒤에 있는 문둥이에게 주문을 잘 배우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부탁하는 거란다. 주문을 배우고 난 뒤에는 나에게 가르쳐다오."

"예, 잘 배울게요."

"고맙다. 내가 코끼리를 사로잡는 주문만 배운다면 너와 나는 더 큰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셔요. 궁중제관께서 욕심은 재앙의 문이라고 했어요."

"우데나왕이 나를 모욕해서 그런다. 나를 우습게 보는 왕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예, 잘 배울 테니 걱정 마셔요."

마침내 궁중 한 방에서 커튼을 사이에 두고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가 마주앉았다. 방문 밖에는 짠다빳조따왕의 호위군사들이 경계를 섰다. 우데나왕은 삼배를 한 와술라닷따에게 약속대로 주문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와술라닷따가 주문을 다 배우면 자신은 앙가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와술라닷따는 주문을 잘 따라하지 못할 뿐더러 외우지도 못했다. 주문은 한 자라도 틀리면 소용이 없었다. 야생 코끼리는 영리해서 틀린 주문을 금방 알아차렸다. 와술라닷따는 착하기만 했지 영민하지는 못했다. 하루 종일 우데나왕이 주문을 가르쳤지만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우데나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꼽추야, 입술이 두터워서 더듬거리는 거냐! 커튼이 가려져 있기 망정이지 너를 볼 수만 있다면 회초리라도 들었을 것이다."

"말이 심하십니다."

와술라닷따는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말했다. 아반띠국의 공주에게 문둥이가 수모를 주다니 참을 수 없었다.

"나를 꼽추라고 부르다니!"

"내가 정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진전이 없다니.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다 외웠을 것이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나를 꼽추에다 바보라고 부르다니! 천한 문둥이라서 입이 거칠군!"

"나를 문둥이라고 부르는 너야말로 누구냐?"

우데나왕도 와술라닷따에게 문둥이라고 모욕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와술라닷따가 홧김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난 아반띠국 왕의 딸 와술라닷따다."

"나를 속이지 마라. 왕이 그대를 꼽추라고 했다."

"그대도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시오. 아버지께서 그대를 문둥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앙가국 우데나왕이다. 그대의 아버지에게 속아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나도 속은 것인가? 아버지가 그대를 문둥이라고 했는데..."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알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와술라닷따가 말했다.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우릴 속였군요!"

와술라닷따는 우데나왕에게 문득 연민의 정이 생겼다. 공평하게 따진다면 아버지 짠다빳조따왕이 우데나왕을 속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사랑을 나누었다. 우데나왕은 순수한 와술라닷따에게 반했고, 와술라닷따는 용감한 우데나왕이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짠다빳조따왕이 두 사람 간에 정이 싹튼 줄도 모르고 와술라닷따에게 물었다.

"딸아, 주문은 잘 배우고 있느냐?"



"예, 아버지 조금만 더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는 법이었다. 와술라닷따는 아버지 짠다빳조따왕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는 짠다빳조따왕이 정해준 궁중 방에서 날마다 주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척하면서 껴안고 지냈다. 호위군사들은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우데나왕이 몹시 낙심한 표정을 짓고 와술라닷따를 바라보았다. 와술라닷따가 물었다.

"무슨 슬픈 일이 있군요."

"그대와 사랑을 나누기에는 이 방이 너무 좁다오. 나를 내 나라로 돌아가게만 해준다면 나는 그대를 왕비로 삼겠소."

"당신의 왕비가 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그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앙가국의 왕비가 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와술라닷따가 우데나왕에게 말했다.

"약속을 지키신다면 당신의 목숨을 구해드리겠어요."

"틀림없이 지키겠소."

와술라닷따는 짠다빳조따왕에게 가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짠다빳조따왕은 주문을 다 외운 줄 알고 반갑게 맞이했다.

"딸아, 이제 주문을 다 배웠느냐?"

"다 외우기는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연습을 해야겠어요."

"뭣이 필요한지 언제든지 말하거라."

"아버지, 산에 가서 사냥하려면 말이나 코끼리가 필요해요."

"알았다. 내 전용 말과 코끼리 이용을 허락하마."

와술라닷따는 짠다빳조따왕에게 방문 열쇠까지 받았다. 호위군사들에게는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가 아무 때나 사냥을 나갈 것이니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는 마음대로 방을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더 없이 기뻤다.

짠다빳조따왕에게는 다섯 가지 운송수단이 항상 대기했다. 첫째는 한 번에 오십 요자나를 갈 수 있는 암코끼리 밧다왓띠였다. 둘째는 한걸음에 육십 요자나를 달리는 노예 까까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번에 백 요자나를 갈 수 있는 두 암당나귀 쩰라깐티와 문자께시였다. 다섯 번째는 쉬지 않고 백이십 요자나를 갈 수 있는 코끼리 날라기리였다.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는 짠다빳조따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순행하는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데나왕은 암코끼리 밧다왓띠에 일곱 개의 자루마다 와술라닷따가 몰래 가지고 온 금과 은을 가득 채워 실었다. 그런 뒤 와술라닷따를 태우고 도망쳤다. 궁궐의 호위군사들이 뒤늦게 발견하고는 짠다빳조따왕에게 보고했다. 짠다빳조따왕이 소리쳤다.

"즉시 쫓아가서 붙잡아라!"

"예, 알겠습니다."

"우데나는 코끼리를 부릴 줄 아는 왕이니 반드시 날랜 말을 타고 추격하라."

우데나왕은 추격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자루를 푼 뒤 금과 은을 길바닥에 뿌렸다. 추격대는 잠시 추격을 멈추고는 금과 은을 주웠다. 탐욕스러운 나머지 눈이 어두운 것은 왕이나 군사나 마찬가지였다. 우데나왕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금과 은을 뿌리며 국경을 넘었다. 국경 부근에는 때마침 우데나왕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군사들은 우데나왕을 철통같이 호위한 채 곧장 꼬삼비로 돌아갔다. 꼬삼비에 도착한 우데나왕은 환영 나온 성민들에게 선언했다.

"이 여인은 짠다빳조따왕의 딸이다. 이제는 나의 왕비가 될 것이다."

"와아! 와아!"

성민들이 용감한 우데나왕의 모습을 보고는 환호했다. 적국에 잡혀 들어가 혼자서 도망쳐온 것이 아니라 적국의 공주까지 데려왔으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민들은 우데나왕을 사지에서 돌아온 영웅처럼 이전보다 더 떠받들었다. 다음날에는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의 결혼식이 성민들의 축제로 거행되었다. 성민들이 우데나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된 와술라닷따에게 꽃을 뿌렸다. 축제는 꼬삼비뿐만 아니라 앙가국 전역에서 며칠 동안 벌어졌다.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창문에 걸렸던 초승달이 사라지고 없었다.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에게 합장한 뒤 코코아 음료로 목을 축였다. 아쇼까는 우데나왕이 부러웠다. 담마팔 사문이 아쇼까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말했다.

"부왕이시여, 우데나왕은 용감한 데다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적국의 왕에게 붙잡혔지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모습이 부럽소."

"그렇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영혼까지는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어찌해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소?"

"붓다의 가르침이란 한 마디로 바로 그것입니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의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담마팔 사문이 다시 말했다.

"부왕이시여, 우데나왕의 영광은 붓다께 귀의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데나왕의 영광이란 붓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문이여, 나는 아직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부왕이시여, 소승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과 밤늦게 헤어졌다. 그때 아쇼까가 담마팔 사문을 위해 호위대장에게 횃불을 켜서 배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의 호의를 거절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조용히 걸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⑳ 조동선풍의 한국적 전개



▶ 한줄 요약
조동종의 가풍은 교단의 측면으로는 미미하였지만 그 중요한 교의는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면면하게 전승되어 왔다.

고려 초 조동선풍은 운거선풍이 절대적

1. 조동선풍의 형성

당나라 말기 9세기 중엽에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와 그의 문하인 조산 본적(曹山本寂, 840~901) 및 운거 도응(雲居道膺, ?~902)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동종(曹洞宗)은 한국 및 일본에서 오늘날까지 면면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경덕전등록〉에는 동산 양개의 법사로서 26명의 이름이 전한다. 이들 가운데 조동종의 교단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운거 도응과 조산 본적이다. 도응은 동산 양개를 15년 동안 모시고, 입적한 이후에도 탈상할 때까지 2년을 더 동산에 머물러 총 17년 동안 동산에 주석하였다. 이후로 운거산으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주석하면서 1000명이 넘는 대중을 거느렸다. 이들을 통해서 초기 조동종의 교단의 형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고려 초기에 전승한 조동선풍은 운거의 선풍이 절대적이었다.

〈조당집〉에는 동산으로부터 도응으로 계승되는 일련의 선풍이 전수(展手)·조도(鳥道)·현로(玄路)의 동산삼로(洞山三路)와 괄골선(刮骨禪)이 강조되어 있다. 전수는 유인하여 접화하는 방편으로서 중생을 화익(化益)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도는 불염오(不染汚)의 수행을 비유한 것으로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는 자유무애한 납자의 수행으로, 분별이 초월되고 집착이 단절된 소식이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그 종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이다. 현로는 현묘한 길을 의미하는데, 유무(有無) 및 미오(迷悟) 등 이견(二見)을 초월한 공적한 길을 가리킨다.

또한 괄골선이라는 용어는 조동종 선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주도면밀(周到綿密)과 용의주도(用意周到)의 정신을 나타낸다. 일상의 행위에서 매사에 소홀함이 없이 여법하게 용심하는 모습이 마치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엄격한 수행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의 자립을 강조한 말이다. 괄골선의 선풍은 운거 도응으로 계승되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별의 언어에 대한 집착을 배제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언어를 지니고 그것을 진실하게 자각할 것이 강조되었다. 마치 몸에 들어간 독은 뼈를 쪼개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점에 비유한 것이다. 이들 동산삼로와 괄골선은 결국 용의주도하고 주도면밀한 조동의 행지를 지향하는 가풍을 드러낸 것으로서 독특하다. 기타 조동종지로 중요 시 된 것은 일체의 상을 초월하여 종적을 남겨두지 않는 몰종적(沒蹤跡)의 수행을 중시하였고, 제일의제(第一義諦)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에 근거한 본증(本證)을 강조하였으며, 바로 현재의 자리에서 깨칠 것을 도모하는 직하승당(直下承當)과 모든 깨달음은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을 체험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동가풍을 언급할 때 소급하여 청원 행사(靑原行思, ?~740)로부터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및 약산 유엄(藥山惟儼, 751~834) 그리고 운암 담성(雲岩曇晟, 782~841)에 속하는 선풍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조동가풍에서는 석두의 〈참동계(參同契)〉 사상을 조동선지의 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까닭은 〈참동계〉에서 설파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를 비롯한 기타의 사상적인 뿌리가 본격적인 조동종지인 조동오위(曹洞五位)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산 양개와 다른 항렬로서 도오 원지(道吾圓智, 769~835) - 석상 경제(石霜慶諸, 807~888)의 문하인 동안 상찰(同安常察, ?~961)이 지은 〈십현담(十玄談)〉의 선리(禪理)까지도 포함시켜 두고 있다. 그 까닭인 본래 화엄교학의 십현(十玄)을 빌려 칠언율시의 형식으로 저술한 것인데, 순서대로 심인(心印)·조의(祖意)·현기(玄機)·진이(塵異)·불교(佛敎)의 다섯 항목에 대해서는 선종의 요지(要旨)를 서술하였고, 환향곡(還鄕曲)·파화향곡(破還鄕曲)·회기(回機)·전위(轉位)·정위전(正位前)의 다섯 항목에 대해서는 납자가 수행으로 경력해야 하는 요로(要路)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산 양개의 오위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열 가지의 조목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십현담〉에 대하여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은 〈십현담청량화상주(十玄談淸涼和尙註)〉를 남겼다.

2. 한국에서 조동선풍의 전승

조동가풍이 한국에 전승된 것은 신라 말기에 낭공 행적(朗空行寂, 832~917)에 의해서였다. 낭공대사는 입당하여 석상 경제의 법을 계승하였다. 이후로 고려 초기에 조동종풍을 전승한 인물로는 중국 조동종 제2세 운거 도응의 문하생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해동의 사무외대사(四無畏大士)로 불렸던 이엄(利嚴)·경유(慶猷)·형미(逈微)·여엄(麗嚴)을 비롯하여 20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조동종의 세력이 미약해진 결과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그 법맥의 전승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이 찬술한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30권에 인용된 내용으로 보면 단일 문헌으로는 송대 조동종의 굉지 정각(宏智正覺)의 〈굉지선사광록(宏智禪師廣錄)〉에 가장 많이 의거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진각혜심 진영.

동산삼로(洞山三路)와 괄골선 강조
주도면밀·용의주도 정신의 괄골선
종적을 남기지않는 몰종적 수행중시
넓게는 석두 참동계 연원으로 간주
고려에 최초로 조동종 전승한 낭공
중국운거 도응문하생 주류 형성돼

이보다 약간 이후에 가지산파에 속하는 보각 일연(普覺一然, 1206~1289)은 조동종지의 중요한 선리인 조동오위에 대하여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혹은 〈중수조동오위(重修曹洞五位)〉 3권을 찬술하였다. 이것은 일찍이 중국의 조동종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오위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나아가서 오위의 전승에 관한 몇 가지 이견에 대하여 조동종의 정통성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제명에 보이는 '중편(重編)' 내지 '중수(重修)'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에 송 대에서 편찬되었던 오위설에 대한 문헌을 집대성하여 재편했다는 의의와 함께 한국의 선종사에서 오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일연은 기존에 편찬된 조동오위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중편한 이유에 대하여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동산 양개 시대의 가르침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지러워지고 단절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처음에 조산 본적이 갖가지 주석을 붙이고, 그의 제자인 조산 혜하(曹山慧霞)가 그것을 편집하였으며, 다시 그 제자 광휘(光輝)가 그것을 해석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그 언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법선사(普法禪師) 노겸(老謙)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송본(宋本)을 얻어 중간(重刊)하고, 다시 거기에 조동의 유문(遺文)과 조산(疎山) 및 말산(末山)의 〈어결(語訣)〉을 합하여 하편(下篇)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았다. 때문에 일연이 조계의 소융화상(小融和尙)을 만나 의기투합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노겸본(老謙本)을 검열하여 거기에 배열을 변경하고 생략하면서 새롭게 후세의 오위설을 가미하였다.

일연은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중편조동오위〉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확정하였다. 석두의 〈참동계〉와 더불어 조동종지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는 〈보경삼매〉에 대한 작자의 문제를 동산 양개로 확정하였다. 또 '축위송(逐位頌)'에 대한 작자의 문제를 조산 본적으로 확정하였다. 또 오위에서 제사위(第四位) 명칭을 겸중지(兼中至)가 아닌 편중지(偏中至)로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일연의 견해는 원시조동종의 오위에 근거하여 동산과 조산의 오위에 대한 제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구체적인 대목에 대하여 일연은 '동산오위현결(洞山五位顯訣)'에 대해서는 네 곳, 또한 '천동사차송(天童四借頌)'의 경우는 네 곳, 조산 '축위송'의 경우는 세 곳, '원진장로간(元眞長老揀)'의 경우는 한 곳, '보협론(寶篋論)'의 경우는 두 곳, '동산삼구(洞山三句)'의 경우는 세 곳, '정재한한거사조동찬(定齋閑閑居士曹洞贊)'의 경우는 한 곳 등 총 18회에 걸쳐서 자신의 견해를 보왈(補曰) 혹은 보운(補云)의 형태로 가미하여 주석을 가하여 당시까지 전승해왔던 조동오위에 대하여 그 정통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조선 초기에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중국에서 찬술된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대한 주해인 법안 문익의 〈십현담청량화상주(十玄談淸涼和尙註)〉에 근거하여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를 남겼다. 여기에서 김시습은 다양한 선어록을 인용하여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1475에 설잠이 폭천산(瀑泉山)에서 붙인 '십현담요해서(十玄談要解序)', 선종오가의 종파는 모두 방편이라 설명한 '오파원류도(五派源流圖)', 법안 문익이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붙인 주석에 다시 조목조목 설잠이 해석을 가한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그리고 부록으로 '문수면목(文殊面目)'·'관음묘창(觀音妙昌)'·'보현묘용(普賢妙用)'의 '조주삼문(趙州三門)' 및 '십현담음의(十玄談音義)'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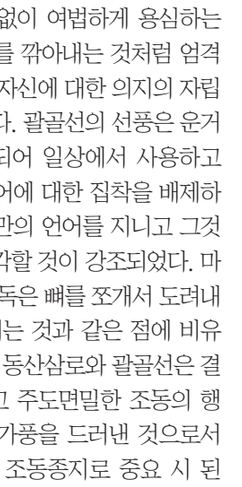
설잠의 〈십현담요해〉는 동산 양개의 오위에 근거한 동안상찰의 〈십현담〉이 지니고 있는 오위의 사상을 이어받아 한국에 전승시켰다는 점에 우선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 설잠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기존의 '오위송(五位頌)'을 하나로 엮어 거기에 주석을 가하고 〈조오위군신도(五位君臣圖)〉의 경우처럼 도해를 곁들인 점은 당시의 조동선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오위의 실천적인 측면을 긍정하여 파악하려 한 점이 엿보인다. 조동선법 특히 오위사상에 대한 설잠의 이러한 노력은 자칫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으로 치우치기 쉬운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 및 운거 도응으로 대표되는 원시조동종의 교의에 대한 몇몇 기관(機關)에 대하여 선수행의 역동성을 모색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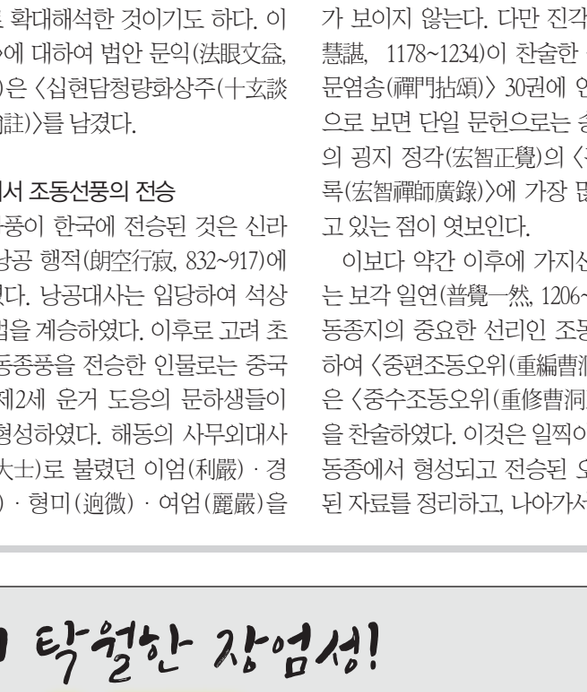
이후 환성 지안(喚惺志安, 1664~1729)은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에서 조동종의 종지에 대하여 그 대의를 향상(向上)에 대한 해명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방편으로 오위(五位)를 열어서 삼종의 근기를 교화한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서 조동종의 교의에 대해서는 편정오위(偏正五位), 공훈오위(功勳五位), 군신오위(君臣五位), 조산삼타대양명안화상석(曹山三墮大陽明安和尙釋), 동산삼종삼루(洞山三種滲漏), 동산창도삼강요(洞山唱道三綱要) 등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을 가하였다. 환성 지안의 〈선문오종강요〉는 이후에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의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를 통하여 다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근세에 만해 용운(萬海龍雲, 1879~1944)은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찬술하였다. 1925년 여름 설악산 오세암에서 〈십현담요해〉를 보고 찬술한 것으로 일종의 불교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행의 모든 주석을 벗어나서 〈십현담〉의 원문에 충실하게 현대적인 주석을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는 〈십현담〉의 의의를 보살행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조동종지의 선사상에 대하여 소위 터럭을 뒤집어쓰고 뿔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피모대각(被毛戴角) 및 인간이 아닌 다른 부류의 중생으로 화현하여 보살행을 펼쳐가는 이류중행(異類中行) 등으로 대변되는 중생교화의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조동종의 가풍은 교단의 측면으로는 미미하였지만 그 중요한 교의는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면면하게 전승되어 왔다.

〈동국대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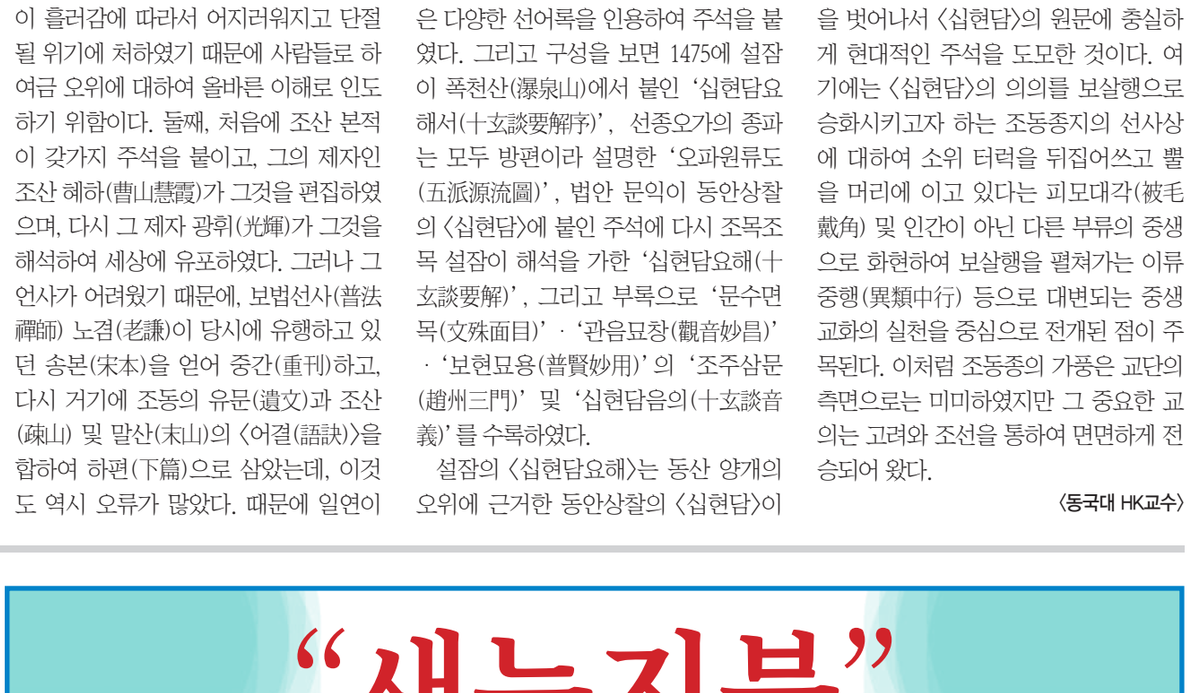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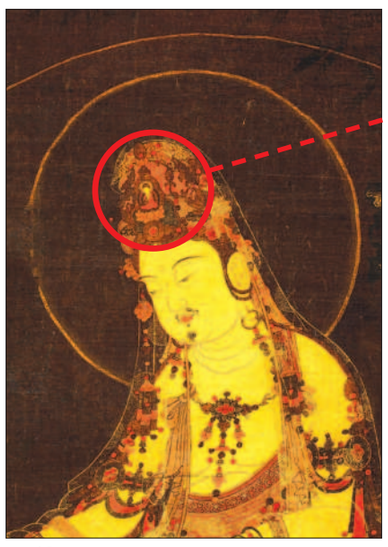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20 〈수월관음도〉



▶ 한줄 요약
현존하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45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관음보살의 보관에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음보살을 장엄하는 천의, 서기 등이 그냥 장식물이 아니라 관음보살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보관 속 아미타불도 관음보살이 곧 '청정자비'을 보여준다.

관음보살 보관엔 왜 아미타불 있을까

관음보살(또는 관세음보살)의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寶冠)' 이 있다.(그림①) 보관은 '보배로운 관' 을 말한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불' 이 있다.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경우에도, 보관 한 가운데에 붉은 법의를 입고 있는 아미타 좌불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②) '붉은 법의의 아미타 좌불(坐佛)' , 이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45점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되는 특징이다. 꼭 붉은 색깔 법의에 좌불 형식이 아니더라도, '보관 속 아미타불' 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관음보살상의 필수불가결 도상(圖像)이다. 아니, 보관에 아미타불이 없으면 관음보살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그 이유는 무얼까? '보관 속 아미타불' 의 까닭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보살은 왜 화려하게 장엄(莊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자.



그림①

그림①. 일본 담산신사에 소장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상반신.

그림②. 〈수월관음도〉의 보관 속 아미타불을 확대한 모습. 보관, 천의 등 관음보살을 장엄하는 것들은 모두 관음보살 그 자체다. 관음보살은 곧 청정자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극락정토에 이를 수 있다.

관세음보살 화려한 보관에는
항상 아미타부처가 상주중인
〈수월관음도〉도상 공통 특징

서기 · 정병 등 관음보살 자체
세상 맑히는 에너지를 상징해



그림②

'보살'은 왜 화려하게 장엄하나?

다양한 보살들(지장보살을 제외하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장엄된다. 보관은 여의주(보배 구슬) · 연꽃 · 서기(상서로운 기운) · 보상화 등으로 꾸며진다. 많은 보살 중에 지장보살만 보관이 없는 이유는 지난 연재18 · 19회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머리에 쓴 보관은 매우 높고, 입고 있는 천의(天衣: 하늘 옷)는 아주 다채롭고, 걸치고 있는 온갖 장신구는 영롱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살의 장엄에서 만난다. 그러면, 보살은 왜 이렇게 화려한가? 보살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운가? 그 이유는 보살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을 장엄하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어째서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은 '세상은 어째서 아름다운가' 와 똑같은 질문으로 보면 되겠다. 아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 해석하면 되겠다. 경전 상의 표현으로는 '세상을 증장(增長)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을 검은 번뇌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나를 살리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세상을 치유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로 보면 되겠다.

보살이 보관을 '쓰고' 있고, 천의를 '입고' 있고,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불교미술을 보는 눈' 이 열렸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보살의 몸체 그 자체가, 대표 대승경전들에 구구절절 말하고 있듯, '삼라만상을 안팎으로 장엄하는 에너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살의 몸체 자체가 여여(如如)한 화엄(華嚴) 세계이자, 청정한 극락정토이다. 법계가 변화무쌍하게 연기(緣起)하는 풍광인 것이다. 그러한 몸체에서 다시 끝 간 줄 모르고 나오는 장엄연기(莊嚴緣起)의 분출! 즉, 보살의 몸체에서 무궁무진하게 솟구쳐 나오는 서기(瑞氣)를 보관 · 천의 · 장신구의 형태를 빌려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방대한 〈화엄경〉 전권을 관통해 서술된 보살십지(菩薩十地)의 장엄한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량한 선행 공덕의 과보로 받은 몸체가 이토록 광활하고도 깊단 말인가. 나는 기껏 인도(人道, 육도윤회 중에 인간세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아, 업장의 바닷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화엄경〉뿐만 아니라 〈무량수경〉 및 〈관무량수경〉 등에도 중중무진 펼쳐지는 선업(또는 청정업) 세계, 극락의 풍광을 과연 어떻게 그림으로 담을 것인가? 우리의 선조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전문 스님)들은 이것을 한 폭의 불화에, 한 구(軀)의 보살에, 절묘하게 담아냈던 것이다.

관음보살, '나를 맑히는 淸淨 에너지'

'보살은 왜 화려하고 장엄하는가' 라는 근본 의미를 살폈다. 다음은 그러한 장엄 중에 관음보살 보관의 특징, '관음보살 보관에는 왜 항상 아미타불이 있는가' 에 대해 알아보자.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은 무슨 관계이기에 항상 같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음보살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만나는가. 나를 맑히면 만나게 된다. 번뇌 업장으로부터 나를 맑히는 작업을 '수행' 이라고 한다. 중생은 스스로의 업장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본인이 오염되어 있는 줄 모르고 윤회를 계속한다. 윤회의 패턴은 매일 매일이자 세세생생을 같은 도돌이를 한다. 업력(業力)에 평생을 휘둘려 살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다. 여기에 오욕(五欲, 색욕 · 식욕 · 수면욕 · 재물욕 · 명예욕)까지 소용돌이치면 꼼짝없는 고통이다. 업력은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말한다. 고착화된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은 필수겠다. 이 자각하는 힘을 '반야지혜' 라고 하고, 자신의 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를 맑히느냐. 물론 석가모니 붓다께서 그 방법을 펼치셨다. 그 시작은 사마타 수행이다. 사마타는 선정(禪定)이라고 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하여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교 초기 당시, 붓다께서 직접 밝히신 사마타의 대상은 40가지가 있으나, 현재 잘 알려진 호흡 관찰 · 염불 · 화두 참구 등 모두 좋다. 조용한 곳에서 장기적 수행의 여건이 안되고 또 고통이 극심하여 한시가 급한 분들에게는, 단기간 집중하기 좋은 화두 참구를 권해 드린다. 이때는 물론 전문 법사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

화두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요동치는 흙탕물(번뇌)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기간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그 분(관음보살)이 온다. 강렬한 청정에너지가 불덩이처럼 일어나 돌기 시작한다. 이것을 '기(氣)가 돈다' 또는 '기혈이 뚫렸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을 섬광처럼 돌면서 아픔이 뭉친 곳을 뻥 뚫어준다. 고질적으로 아팠던 무릎도, 죽어도 안 풀리던 오십견도, 환절기마다 달고 살았던 비염도, 순간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오셨구나"라고 직감하게 된다. 한순간에 몸속 쓰레기를 싹 청소해준다. 그 신비한 경험도 잠시, 다음엔 더 기막힌 순서가 기다린다. 몸이 정화됨과 동시에 삼매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야 왜 관음보살이 '극락(아미타불)의 안내자' 라고 일컬어지는지, 체득하게 되는 순간이다.

수월관음의 키워드, '청정 · 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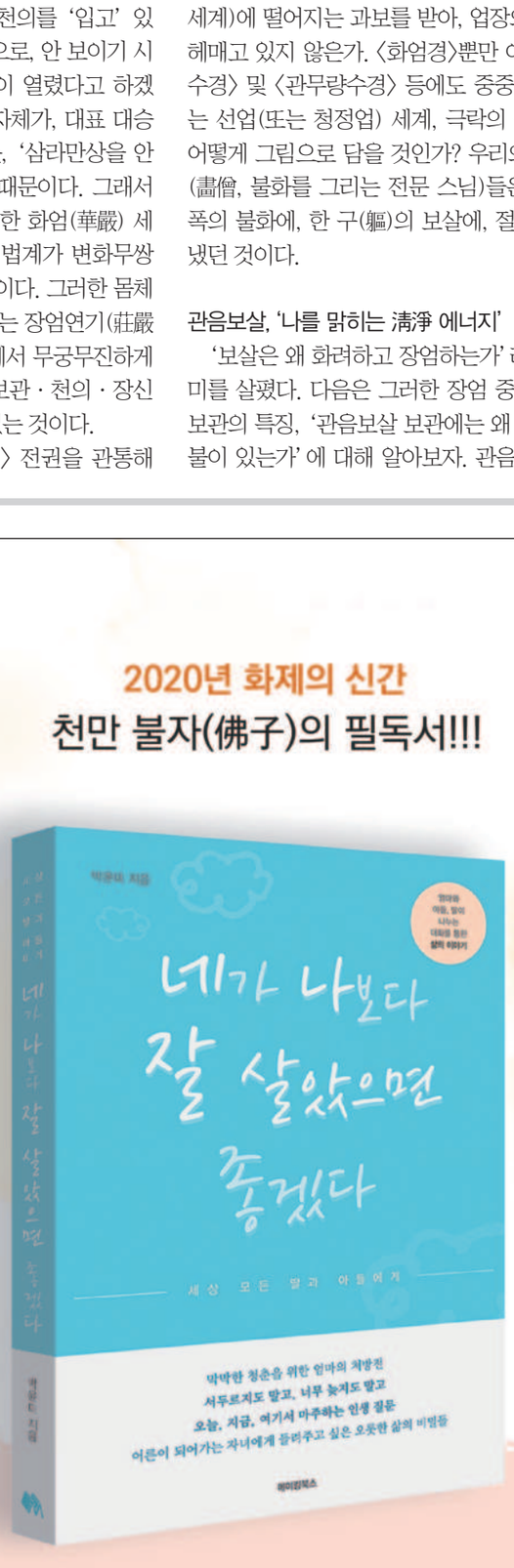
관음보살을 만나야, 그 다음으로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순차적 진리' 이기에, 이 같은 도상(관음보살 보관 속의 아미타불)이 불교의 창시 이래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변함없이 내려왔던 것이다.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먼저,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정화한다. (2)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 차면 물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심적 변화가 몸이라는 물질적 변화로 전환하는 시점에 물꼬를 트듯 강렬한 청정에너지(관세음보살)가 돈다. (3)몸이 정화(淨化)되니, 다음 순서는 무량광(無量光, 무량한 지혜의 빛이란 뜻으로 아미타불을 가르킨다) 속으로 빠져든다. '(1)사마타 수행 → (2)관세음보살 → (3)아미타불' 의 유기적인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업장를 정화시키는 청정 에너지! 그래서 관음보살 조형적 특징 및 도상들은 모두 '청정' 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정병(淨甁), 버드나무 가지(楊枝), 맑은 시냇물, 선재동자 등은 〈수월관음도〉를 특정하는 필수적 도상학적 요소들인데, 이들 요소들은 모두 '청정(淸淨)' 이라는 기능과 상징으로 그 뜻이 모아진다. 정병은 감로병이고, 여기에는 감로수가 들어있다. '감로병(甘露甁) 속의 법의 물(法水) 향기롭구나/어두운 마귀 구름 씻어버리고 상서로운 기운(瑞氣) 살리며/뜨거운 번뇌를 소멸케 하고 청량함을 얻게 하네(甘露甁中法水香 灑濯魔雲生瑞氣 消除熱惱獲淸凉)' 라는 '쇄수게(灑水偈)' 의 내용처럼, 정병의 감로수는 번뇌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1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버드나무의 가지 '맑혀주는 기능' 을 한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그 즙으로 상처와 염증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 부드러운 줄기는 입을 청결하게 하는 칫솔 대용으로도 상용되었었다.

〈수월관음도〉 속에서 관음보살을 올려다보고 있는 선재동자. 보살의 길을 간절히 묻는 선재동자에게 관세음보살은 "맑고 깨끗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구나!"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화엄경〉 '입법계품' 에 전한다. '관음보살은 청정자비(淸淨慈悲)' 라는 정의가 〈화엄경〉 및 〈무량수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청정한 자비의 힘' 으로 우리는 극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2020년 화제의 신간
천만 불자(佛子)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딸과 아들에게

엄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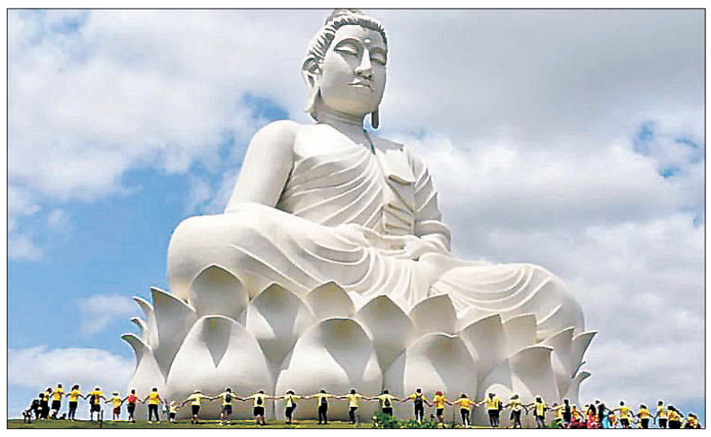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브라질 대불, 종교간 화합 상징으로

지난 8월 완공, 브라질 출신 스님 발원

日사찰 · 기업 보시로 건립
온라인점안, 기념식진행도
지역랜드마크로 기대 모아

박영빈 객원기자



35m높이 서구권 최대의 대불로 건립된 브라질 이비라스 대불. **사진출처=바이글로브 뉴스**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세인 남미 브라질에 35m의 거대한 대불이 조성됐다. 지난 8월 완공되어 점안식을 마친 대불은 흰색의 선정에 든 부처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고 있다. 10월 11일 일본의 '바이글로브 뉴스'는 브라질 출신 스님이 조성한 대불과 브라질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브라질 남동부 이스피리투산투주(州)의 이비라스시에 조성된 대불은, 해당 도시에 소재한 조동종 소속의 젠코지(禪光寺) 경내부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조성을 시작해 2년에 걸쳐 회향됐다. 불상의 높이는 좌대를 포함하여 35m. 브라질의 상징으로 불리는 '리우의 예수상'(30m)보다 큰 크기로 서구권에 조성된 불상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주일 브라질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브라질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대불 조성에 대해 엔도 스님은 "지역 부흥과 불교의 홍보를 위해"라고 밝혔다. 불상은 브라질 국내의 모 기업과 일본사찰들의 보시를 통해 2020년 10월에 완공됐다. 코로나19의 격화로 인해 점안식 등이 미뤄져 왔으나, 지난 8월 28일 온라인으로 점안식과 완공기념식을 봉행했다. 온라인을 통해 점안을 증명한 일본 조동종 관장 미나미자와 도닌 스님은 "대불이 점안을 통해 브라질에 기쁨의 기운이 넘치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엔도 스님은 "이비라스 시는 인구가 1만 2천 명에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작은 시골"이라며 대불을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실제 대불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완공 이후 월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관광이나 수행을 위해 젠코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이 생기면서 도시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불을 조성한 젠코지는 1974년에 처음 이비라스시에 '이비라스 붓신지(佛心寺)'라는 이름으로 건립됐다. 이후 젠코지로 개명한 후 조동종을 포교하는 사찰로 운영됐다. 이탈리아계 이주민으로 젠코지의 부주지를 맡고 있는 알베르토 엔도 스님은 "처음 사찰이 세워졌을 땐, 일본계 이주민이 적고 가톨릭이 열성적인 시골마을이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일본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이주민이 적은 지역으로서 불교는 지역에 큰 위화감이 있는 종교였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스님을 가리키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머리를 밀고 귀신같이 된다'며 악의를 숨기지 않았다"고 초창기 포교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비라스시에 도량을 세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브라질에서 자체적으로 출가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승당(僧堂)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고 밝혔다. 이후 젠코지는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150ha에 달하는 경내부지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환경복원을 이루는 등 지역공헌으로 불교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했다. 또한 경내에 도예학교와 환경학교를 세워 지역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소득도 함께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젠코지 측이 대불 건립을 발표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반대의 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엔도 스님과 젠코지의 대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불의 공개가 늦어지고 더 많은 분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삶의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며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日사찰 "범종 주인 찾습니다"

2차대전 '공출 반납' 종, 출처 불분명

세계 2차 대전 당시 사찰에서 공출된 종의 출처를 찾기 위한 일본불교계 노력이 화제다. 10월 11일 일본의 '오이타 합동신문'은 오이타 호넨지(法然寺)의 종 이야기를 전했다.

오이타(大分)시에 소재한 호넨지는 정토종 사찰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각의 범종과 법당안의 소종을 공출당했다. 전쟁 후 소종 만을 돌려받았으나 20여 년 전, 소종이 호넨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호넨지의 주지 탄바 잇쇼 스님은 "20년 전, 한 주민이 다른 시의 화재감시탑에 걸린 종이 호넨지의 소종이라는 제보를 해왔다. 종에 새겨진 명문과 옛 사진 등을 통해 돌려받은 종이 실은 다른 사찰의 종인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잇쇼 스님은 사용 중이던 종의 명문을 다시 확인한 결과 '덴세이지(專歲寺)'라는 사명과 '사에키(佐伯)'라는 지명을 발견했다. 또한 함께 새겨진 명문에서 종의 조성시기가 1810년인 것도 밝혀냈다. 그러나 스님은 "명문 만으로는 사찰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조양식은 이곳 오이타 지방의 주조법임은 확실하고, 사에키라는 지명이 근처 도시에 있기에 그 곳 어딘가 있는 사찰의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호넨지 측은 현과 시의 역사자료관과 도서관 등에 덴세이지라는 사찰을 찾아



공출에서 돌아왔으나 제자리를 찾지못한 범종과 잇쇼스님. **사진출처=오이타 합동신문**

달라 의뢰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전쟁 직전에 조사된 사찰명부 등에도 해당 사찰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잇쇼 스님은 "전쟁을 전후로 폐사된 사찰도 많았다. 이미 공출이 된 당시엔 사라진 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곳에 온 인연이 있으니, 관계가 있는 사찰이라도 발견되면 그곳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며 계속해서 수소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불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출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변하지 않고 본래의 역할을 지금껏 해준 데에서 전쟁과 평화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종"이라며 "언젠간 본래의 자리에서 종이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泰, 스님들의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 화제

은어와 농담 곁들인 법문
기성종단 측 반발도 강해



두 스님이 방콕의 한 사원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설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스님들의 새로운 온라인 법문이 화제다. 10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농담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태국 스님들의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을 보도했다.

파이완 와라완노 스님과 솜퐁 탈라푸토 스님은 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인 페이스북의 생중계 기능을 이용해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을 시작했다.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은 태국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농담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으로, 두 스님은 일약 소셜 미디어 스타로 유명해졌다.

파이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장차 불교는 어떤 종교가 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적 삶에 대한 조언, 청년들에게 통하는 풍부한 유머를 섞으며 현대 태국 불교계의 문제인 살인, 마약, 성, 돈 세탁 등의 사찰 스캔들을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바라보는 설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야간통행금지의 장기화와 잦은 폐쇄조치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태국 청년들에게 온라인 설법은 새로운 안도감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 법문에 참여한 한 청년 불자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직장, 돈, 가족, 전염병, 그리고 폐쇄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 밤 두 스님의 유머가 넘치는 설법이 나의 하루를 밝혀준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설법은 불교계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달 두 스님은 국가종교위원회에 소환되어 불교계 고위인사들에게 '온라인 활동으로 승려로서 위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대표적인 불교계 보수단체인 헌법수호협회의 스리 수완잔야 회장은 "출가자는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태국 청년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출가자가 변화할 필요는 없다. 두 스님의 행보는 지난 2600여 년간 존재해온 불교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태국불자들은 두 스님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불자는 온라인 댓글을 통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구태의연한 의례가 생략돼 편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방문의 어려움을 온라인 속 불자를 위한 공간을 개설하여 불법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대는 변했다"고 말하며 온라인 설법을 지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4대성지 순례 열차 운행 재개

열차 재정비, 5성급 호텔 서비스



인도철도의 특별관광열차 '불교 4대성지 순례 열차'. **사진출처=인도 관광 진흥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도 성지순례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13일 인도 언론 '인디아닷컴', '민트', '뉴스18' 등은 인도철도의 특별관광열차 '불교 4대성지 순례열차'의 운행재개 소식을 전했다.

12량 1편으로 구성된 불교 4대 성지 순례열차는 불교성지 뿐만 아니라 바라나시와 아그라 등 인도의 유명관광지들도 함께 돌아 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순례 상품은 2008년 인도 관광부와 철도부의 협업으로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특히 부처님의 탄생성지인 룸비니가 인도가 아닌 네팔에 있음에도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순례가 가능하게 하여 순례자들과 인도불교유적에 관심을 가진 여행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성지순례열차는 잠정 중단됐고, 이 기간 동안 인도 관광부와 철도부는 열차운행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열차는 5성급 호텔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변모했다.

개편된 열차는 1등석 4량, 2등석 2량, 주방칸 1량, 식당칸 2량, 직원칸 1량, 동력차 2량으로 구성됐으며 전 차량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특히 1등석 4량 중 1량은 침대를 없애고 1인용 소파로 교체하여 파노라마로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마련했다. 최신 주방장비와 예술품으로 꾸민 식당칸과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객실 내 욕실, 미니 도서관, 마사지 서비스 등 각종 편의 시설과 인테리어에 신경 썼으며, 특히 5성급 호텔의 전문 호텔리어로 이루어진 승무원들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의 안부를 묻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㊴ 법화 일승(一乘)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묘음보살이 백천만금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바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부처님께서 세존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어려운 일 없으시며 즐겁게 지내십니까? 사대가 조화롭고 편안하십니까? 세상일은 견디실 만하십니까? 중생제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탐욕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어리석고 교만하며 질투심이 많은 중생들은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며, 사문에게 불경스러우며, 그릇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까? 다섯 가지 정욕(五情)을 잘 절제하여 거두지 못한 이는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능히 마군과 원수를 잘 항복 받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여래께서 칠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을 들으십니까?' 또 다보여래께 문안하셨습니다. '편안하시고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잘 참고 오래 견디어 오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여래의 몸을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하여주십시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여래께 말씀하셨다.

"이 묘음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여래가 묘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여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또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묘음보살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정광장엄국에서 정화수왕지부처님을 뵌 묘음보살이 신통력으로 선물 영락을 가지고 사바세계 영축산에 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여래에게 정화수왕지부처님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다. 〈법화경〉 특유의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다. 〈법화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름도 비슷한 〈비화경(悲華經)〉이 있다. 자비를 꽃에 비유하여 이름을 삼은 경이다. 이 경에는 예토성불(穢土成佛)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부처님이 정토에 계시지 않고 예토에 오시는 것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전생의 서원인 본원(本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록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보살이 있지만 불·보살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사바세계 예토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불의 참가치가 예토에 있다는 것이다. 정토신앙에서는 중생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부처님이 계신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든가 미륵정토인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내세 위주의 신앙에서 발원하는 정토를 타방정토(他方淨土)라 한다. 그런가 하면 여기가 불국토라 하여 부처님 국토를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차방정토(此方淨土)가 있다. 예토성불은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불국토화하는 것이므로 차방정토가 된다. 물론 차방, 타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유심정토설(唯心淨土說)도 있다. 이는 선종(禪宗)에서 주로 말해 온 설이다. 〈법화경〉에서는 이 세 정토에 관한 설이 다 수용되어 있지만, 사바세계가 가장 성불하기 좋은 곳이라 하므로 차방정토를 우선으로 말하고 있는 경이다. 이미 '방편품'에서 밝힌 대로 부처님이 일대사(一大事)를 할 수 있는 곳이 중생이 있는 사바세계라는 것이다. 신라 때 원효는 그가 지은 〈법화경종요〉에서 〈법화경〉 대의를 서술하면서 〈법화경〉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법화경〉은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큰 뜻과 일체중생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밝힌 진리의 문이다. 깊고도 드높은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일 하나(一大事)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고(開示悟入), 모든 부처님의 몸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이치와 세간과 열반이 결코 대립하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이치를 밝혔다."

이는 정토와 예토가 다르지 않으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말로 법화일승(一乘)의 본뜻을 밝힌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좋은 의도 행위가 좋은 결과 가져와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㊴ 공리주의와 불교윤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부분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겠지만, 일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다. 흔히 전자의 입장을 이기주의(利己主義)라고 하며, 후자의 입장을 공리주의(功利主義)라고 한다. 대부분 평상시에는 이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막상 자신의 상황이 되면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머릿속으로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나아가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쾌락주의로서의 공리주의는 한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공중적(公衆的)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각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하든, 개인의 이익과 공공(公共)의 이익이 충돌하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익을 절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근대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주창된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로 목적을 기준으로 규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즉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산출해 냈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을 경우 '모든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고 그름의 최종적 판단 근거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선(善)인 '행복'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도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가에 따라 내려진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행복주의를 내세우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와 불교윤리는 어느 지점에서 맞닿을 수 있을까? 영국의 불교학자인 데미언 키온(Damien Keown)은 그 지점을 '행위의 선택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고려'로 파악한다. 수많은 경전에서는 불교도들에게 그들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의 업(業)은 선한 행위와 미래의 행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듯이, 불교에서 선업(善業)은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설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대승불교에서 두드러지는데,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경우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승의 선교방편론(善巧方便論)도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불교에서는 행위의 동기인 의도(cetanā)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지만, 불교에서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행위가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윤리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⑮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고의로 지은 업과 모르고 지은 업 달라

8. 10가지 악업의 과보

십악업(十惡業)을 지으면 어떠한 과보(果報)를 받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권 제37(1048) '원주경(圓珠經)'에서 이르기를 "살생하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수명이 짧을 것이다. 도둑질[偸盜]을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삿된 음행[邪淫]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자기 아내가 남의 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짓말[妄語]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남의 놀림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간질하는 말[兩舌]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친구들이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욕설[惡口]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제나 추한 음성을 갖게 될 것이다. 꾸밈말[綺語]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말에 신용이 없을 것이다. 탐욕[貪]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탐욕만 더 늘어날 것이다. 성내는 일[瞋]을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성내는 일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삿된 견해[邪見]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리석음만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악을 지어 받는 과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악업을 결코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악업 과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대중 모두 십악업 결코 짓지 말아야
고의로 짓는 업은 반드시 갚음 받고
모르고 짓는 업은 그 갚음 받지 않아
업의 과보 3종 여러 생에 걸쳐 익어

불자 여러분! 업을 짓는 데도 고의로 짓는 업과 모르고 짓는 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경〉 권제3 '업상응품(業相應品)' 사경(思經)에서 이르시길, "만일 고의로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報]을 받되 현세에 받거나 후세에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짓는 업은 반드시 그 갚음을 받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이 모르게 짓는 업은 과보 받음이 없습니다.

지은 업이 나타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지은 업이 성숙되는 기간은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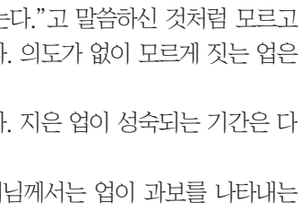
〈다기니까야(Dīgha Nikāya)〉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이 과보를 나타내는 시기를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업의 과보에는 3종이 있다. 업은 이생에서 익고(順世業), 다음 생에서 익고(順生業), 여러 생에 걸쳐서 익는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을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그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생에 지은 업의 과보는 여러 생에 걸쳐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업을 짓게 되면 그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참회와 노력에 따라서 그 과보를 조금 적거나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1호 | 17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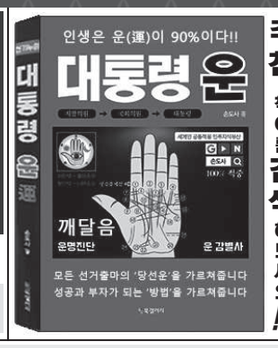
010-5412-8040

단청, 탱화, 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부산시 남구
• • •

010-4435-5660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사찰 세무 및 회계 신고대행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찰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 사찰 회계 장부 및 결산서 작성 대행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전화 : 051-996-0308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모든 것을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 스님 무속인 환영 · 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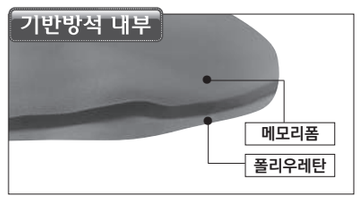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1호 | 18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능엄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토 굴(급) 안 내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사찰안내 가람

●경기도 양평
●부지 총면적 : 1,234㎡(373평)
●건물 총면적 : 240㎡(72평)
●가액 : 6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불자공인중개사 안내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무학대사 수행동굴 있는곳
●대지 410평, 임야220평 임법당 13평, 요사채 52평
●가액 : 3억5천만원

010-2078-9595

포 교 당 안 내

●마산 포교당 22평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보300만, 월30만
●1천만원(시설)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 찰(급)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고성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안 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예쁜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대지 : 약 200평
●건물 : 법당1동 17평(단청)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2층 30평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암 자(터) 안 내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가액 : 3천만원
●위갈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물품)안내

●위치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4길 9
●부처님3분, 절에서 치는 종, 등, 그릇, 상3개
●가액 : 2백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함

010-6453-2110

사 찰 안 내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가액 : 3억 5천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9015-4040
010-2077-7820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산자락 외딴집

●위치 : 영천 화산면 소재
●감나무밭 181평
공부방 24평
실내화장실, 온수설치
●가액 : 8천만

010-3505-9509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불편함과 편해지는 게 수행

편안함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너무 편해서 망해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편안함과 너무 익숙하고 편안함을 집착합니다. 편안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의지하게 되면 약해지고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몹시 약하고 까다로워요.

불편한 것을 일부러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까운 곳에 차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배달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사세요. 음식도 자주 해서 먹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요.

불편한 곳에 가는 것, 불편한 일을 하는 것,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불편한 것을 일부로 택하세요.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간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불편해서 도인이 나왔어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경험할수록 몸은 강인해 지고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불편함과 편해지는 게 수행입니다. 사실은 저도 불편하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냥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참고로 너무 편안하면 살쪄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⑲ 통무관 금준미

만 개의 싹으로 만든 홍차

맑은 물도 정성껏 음미하면 차보다 달고, 아무리 좋은 차도 욕심에 가득차서 마시면 차의 맛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급의 차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마음이지만 마음은 볼 수 없고 찻잎은 볼 수 있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로 차의 싹만을 골라 만든 홍차가 통무관 금준미입니다.

중국 푸젠성 통무관은 홍차의 발원지입니다. 통무관 정산소종은 수 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에서 봄에 피어오른 싹 하나에 찻잎 두세 장(1아2-3엽)으로 만든 홍차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명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무관 금준미는 봄에 처음으로 피어오른 차나무의 싹(1아)으로만 만듭니다. 수많은 차농들이 정성을 모아 1만 개의 차싹을 따야 1근 500g의 생엽이 됩니다. 1근 500g의 생엽을 차로 만들면 약 80g의 금준미가 생산됩니다. 차싹은 사계절 피어오르지만 명품 금준미는 우이산 중국 국가자연보호구역 경내에서 1년에 한 번만 채엽하는 봄 첫 싹으로 만들기에 정말 희소하고 귀한 차입니다. 그래서 10g씩 밀봉하여 극소포장으로 판매를 합니다.

홍차의 세계에서 푸젠성 우이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황강산 통무관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통무관은 정산소종의 발원지로서 유럽인의 차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드나들었는지 오늘날에도 통무관에는 유럽식 예배당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음미하고 차향을 닮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었지요. 홍차무역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광저우나 상하이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육로로 푸 성에 도달했습니다.



통무관 금준미

18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유럽에 차를 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인은 홍차에 열광하였지만, 정작 차에 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홍차나무, 녹차나무가 따로 있는 줄 알 정도로 차에 무지했습니다. 영국은 차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질투했고, 중국은 차나무 종자와 제다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국가기밀로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차 재배지의 외국인 출입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지고 난징조약을 맺어 홍콩이 영국령이 되고 5개 항구가 열리면서 외국인들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내륙의 차 재배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샹여우쩡처, 샤여우뚜이처(상유정책上有政策, 하유대책下有對-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라는 중국유행어가 있는데, 이 방법은 청말 무너져가는 혼란시대에도 통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스코트랜드의 식물학자인 로버트 포춘을 중국 푸젠성에 산업스파이로 파견하였습니다. '차나무 종자와 차 재배 기술을 훔쳐오라!' 로버트 포춘은 1839년에서 1860년 사이 네 차례나 중국에 잠입하였습니다. 청나라 관료의 복장에 변발을 하고 서툰 중국어로 푸 성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차 정보를 훔치고 1851년 2월 마침내 2000그루의 차 묘목과 1만7천 개의 차 종자를 밀반출하는데 성공하였고 6명의 제다기술자까지 포섭하여 유유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 기념사진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로버트 포춘을 중앙에 두고 중국인 제다기술자들이 양옆에 서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득의양양한 포춘의 얼굴과는 달리 제다기술자들은 어찌 그리 처량한지요. 중국에서의 삶도 녹녹치 않았을 차농의 고단한 삶이 포춘을 믿고 밀항한 후에는 나아졌을까요? 포춘은 영국으로 금의환향하여 명예와 부를 얻고 여러 권의 책도 저술했지만 그를 믿고 인도로 간 중국인 제다기술자의 뒷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물사냥꾼, 차도둑으로 불리는 로버트 포춘은 홍차의 역사를 바꾼 장본인입니다. 중국 차나무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다즐링에 번식되었고 또 아삼종 차나무가 발견되는 등 영국의 홍차 산업은 플랜테이션화, 기계화되어 양적으로 중국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홍차의 맛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찻잎을 기계로 으깨고(crush) 찢고(tear) 휘마는(curl) CTC 공법에 여러 향을 첨가한 플레이버드 티(가향홍차)가 대중화 됩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차를 마시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화롯불을 지피고, 재빨리 덧문을 닫고/ 커튼을 드리우고, 소파는 둥글게 돌려놓아야지/ 주전자에서는 보글보글 힘찬 소리가 새어 나오고/ 하얀 김이 기둥처럼 솟구쳐 오르니/ 저마다 취하지 않고도 기분이 좋아지는/ 차 한 잔씩을 앞에 두면/ 이윽고 평화로운 저녁이 시작되리라." (〈홍차애호가의 보물상자〉 p.8)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 차나무를 심었다 해도 당시에 10년, 20년 된 차나무의 찻잎은 맛이 싱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는 심산유곡의 고산운(高山韻)과 이름 모를 수많은 꽃과 약초와 숲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 찻잎 자체가 부드럽고 향기롭고 신선합니다. 차는 색, 향, 미, 운으로 품평하는데 갓 심은 차나무의 찻잎은 고차수와 노총의 기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금준미(金骏眉)를 마시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영국의 홍차처럼 떠들썩하게 마셔서는 안 되고 선차(禪茶)처럼 고요히 몰입해야 합니다. 금처럼 귀하다 하여 금이라 하고, 준마처럼 세계에 널리 퍼져라 해서 준이라 하고, 살짝 휜 차싹이 긴 속눈썹처럼 보여서 눈썹 '미' 자를 써서 금준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찻잎 3g을 85℃ 120ml의 물에 짧게 우립니다. 홍차이지만 너무 연한 싹으로 만들어서 수색이 붉지 않고 반짝이는 오렌지색입니다. 찻잔 위로 금권(金圈)이라 부르는 영롱한 황금띠가 올라옵니다. 정산소종을 실크로 걸러낸 듯 더욱 섬세하고 달콤한 향기가 온 몸에 번집니다. 차는 다 마셨는데 향기는 여전히 남아 아련하게 기억의 저편을 소환합니다.

〈잇다it茶 대표〉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양사
• 주 지 : 도법 (속명 : 정동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오양골길 183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선종 총무원장 법하

마음책 다시 읽기 **붓다의 명상법** ❷ 사마타와 위빠사나

▶ 한줄 요약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

붓다의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



사마타는 반복해서 거론되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마련된 이유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마음챙김 명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키워드를 둘러싼 논란들의 예를 열거해보면, 팔정도의 맥락에서 바른 삼매(正定)를 닦기 위한 바른 마음챙김 명상(正念)에는 표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라든가 붓다의 명상법은 위빠사나 명상이며 위빠사나 명상은 사마타 수행과 반대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빠사나 명상은 사마타 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라든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핵심 기법으로 하는 붓다의 명상법과 관련하여 마음챙김을 사마타 수행법으로 동일시하며 알아차림을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동일시한다든가 사마타 수행에 의한 삼매는 통찰지의 계발을 위한 위빠사나 수행의 필요조건인데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법은 어떠한 것들이고 둘의 관계는 어떠한가 즉, 어디까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언제 위빠사나 수행으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먼저 붓다의 명상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위에 열거한 의문점들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의 명상법은 흔히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앞서 2장 1절에서 붓다의 명상법을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근거는 명상법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대표적 경인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의 제목에 빨리어 용어가 쓰였으며 이것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로 영역되고 한역어로는 마음챙김이 대체로 받아들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붓다의 명상법을 위빠사나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명상법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매경〉에서 붓다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측면을 말하며 두 가지를 균형있게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사마타(삼매)와 위빠사나의 통찰지를 얻기 위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닦으라고 설한다. 정리하면 그의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둘을 닦는 수행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로 설명되는 붓다의 명상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붓다의 명상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경인 〈대념처경〉의 빨리어 명칭은 '마하사띠빠타나 수따'이다. '큰 가르침 혹은 긴 마음챙김의 확립경'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대념처경〉에 마음챙김의 확립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 지혜만이 있고 바른 마음챙김만이 있어서 갈애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챙김 명상에 의해 준비단계에서 상대적인 견해 수준에 머물던 정견이 수준 높은 지혜로 발전하고 삼매가 계발되어 번뇌의 원인인 갈애가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챙김의 확립은 사념처 수행과 떼어놓고 논할 수 없다. 몸, 느낌, 마음, 법에서 그것들을 더러움, 괴로움, 무상, 무아라고 파악하면서 깨끗함, 행복, 항상함, 자아라는 전도된 인식을 버리는 역할을 성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의 측면을 지니는데 삼매는 위빠사나 수행에 의해 통찰지를 개발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에 의해 길러진 집중력을 바탕으로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들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그대로 보고 명상하고 깊게 관찰하여 궁극적으로 법들의 일반적 특징인 무상, 고, 무아를 통찰지로써 꿰뚫어 번뇌의 근본 원인인 무명을 타파하여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통찰지는 이치대로 일어나는 법들을 개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의 진실인 있는 그대로의 법에 대해 통찰지를 얻는 것은 위빠사나 수행의 과제이다. 법은 '지금 이 순간' 연기법의 이치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 본성, 그 이치인 연기법 모두를 포괄한다. 반면, 개념은 우리로부터 법을 숨긴다.

흑자는 〈청정도론〉에 근거해 개념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삼매를 닦은 후에 위빠사나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요가적 사마타 명상법이 붓다의 명상법의 사마타 수행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배경과 둘의 차이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붓다의 명상법을 다루면서 개념이나 표상에 집중하는 요가적 사마타 수행법이 거론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 〈청정도론〉과 아비담마는 절대적 준

마음챙김에 대한 경전 설명
위빠사나 사마타 함께 포함
갈애 견해 의지않고 머무름

거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두 전거에 붓다의 명상법의 일부로 표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법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챙기라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서 저자는 아누룻다 스님이 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통해 아비담마의 내용을 접근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나타나는 사마타 수행법 중에서 까시나 명상과 같이 표상에 집중하거나 호흡의 개념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은 요가적 사마타 수행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요가적 사마타 명상은 마음작용이 끊어져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추구한다. 마음작용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사유기능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리고 즐거움, 자의식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표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법은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에 나타나는 호흡에 대한 수행법을 보면 들숨과 날숨을 경험되는 그대로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라고 한다. 마음챙겨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표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의 촉각적 느낌이다.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몸의 감각인 것이다. 또한 〈상와라경〉을 보면 감각의 제어를 위한 수행방법으로 바깥대상의 표상이나 부분상을 파악하지 말고 감각기관과 감각적 대상의 접촉을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 나타난다. 아름답다는 표상이나 손, 발, 미소, 웃음 등의 부분상을 파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표상은 탐, 진, 치라는 오염원이 작용하도록 만들고 세세한 부분상들이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감각기관과 감각적 대상의 접촉은 번뇌가 일어나는 지점이므로 접촉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수행에 의해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개념이나 관념은 법념처 수행의 대상일 뿐이다. 법념처 수행에 의해 개념이나 관념은 소멸되어 삼매의 계발을 가져오고 그것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함으로써 무상을 통찰지로써 얻게 된다.

한편, 요가적 명상의 사마타 수행법은 대상과의 완전한 합일상태인 삼매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성을 초월한 개념이나 표상을 대상으로 집중을 닦는다. 대상에의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는 상대적 지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작용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요가적 명상 수행의 기초단계에서는 호흡의 개념이나 다른 표상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궁극적 명상의 대상은 신의 개념이다. 여기서 신은 창조주로서의 인격신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혜와 힘의 최고 완성의 모델'이다. 그러한 신의 개념에 명상하는 것은 수행자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인간의 불완전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따르면 요가적 사마타 수행에 의해 도달하는 세계는 개념 너머의 초월세계라고 생각된다.

명상체계로서의 요가의 전통은 유구하여 긴 시간 동안 역사적 배경 아래 다양한 종교적 사상적 혼융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붓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요가 전통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붓다의 사상과 명상법의 태동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붓다가 출가한 후 찾아간 수행자들 중 아라다 깔라마와 우드라까 라마뿌뜨라는 상캬·요가 수행자들로 알려져 있다. 붓다가 이들을 통해 접했을 요가 전통은 브라흐마니즘이라는 유신론적 배경에서 싹튼 범아일여의 일원론의 교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무신론적이며 이원론적 성격을 지닌 상캬 형이상학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상캬·요가 수행선사들은 아뜨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붓다가 접한 요가 전통은 초기 우빠니샤드와 중기 우빠니샤드에 나타나는 내용이 혼합된 형태로 보인다. 아뜨만의 절대적 실재성의 진리는 순수한 의식에 도달할 때 습득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허망 분별을 만들어내는 마음작용의 지멸이 필요하다.

반면 붓다에게는 유신론적 초월세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생생한 경험 세계에 대한 직접적 통찰에 의한 지혜를 얻어 번뇌의 근본 원인인 무명을 타파하여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추구하였다. 시간성을 띠는 현실세계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요가적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들을 억누름으로써 마음의 고요함을 계발하지만 번뇌를 억눌러서 이룩된 고요함은 일시적인 심리적 상태일 뿐 다시 번뇌가 밀려오면 불안정해진다. 붓다는 마음의 고요함 즉, 삼매는 지혜를 계발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 요소이지만 무명을 물리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붓다에 의하면 마음의 고요함만으로는 생사윤회의 근본인 번뇌를 끊지 못하고 위빠사나의 지혜로써만 끊을 수 있다.

'붓다에게 세간적인 도를 벗어난 출세간의 도는 위빠사나의 통찰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붓다의 명상법과 관련하여 사마타란 삼매의 의미로 쓰인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삼매는 마음이 온전하게 집중된, 정신통일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음챙김 명상은 대상을 객관화시켜 알아차리는 수행이기 때문에 대상에의 몰입을 위해 집중을 닦는 요가적 사마타 명상과는 달리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유지된다. 마음챙김 명상의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이나 대상 영역 '호흡,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대상을 객관화시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가적 사마타 수행과 같이 대상에의 몰입을 위한 집중을 닦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분리시켜 마음챙겨 알아차린다. 대상이나 대상 영역을 정하는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도 삼매가 길러진다.

저자 : 이자연 박사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대행 스님

어떠한 환난도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버린다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신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 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회사를 하니까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사장이 됐으니깐 차도 타야 하고, 사장이 됐으니깐 '나'라는 모가지가 뻣뻣하게 그냥 굳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수그릴 줄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 보니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장에 그냥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홀딱 다 넘어가고 자기 들어 있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나올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은 자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이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돌봐 주면서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는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내 밥내도 못 맡게 됩니다.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벌레가 돼서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치욕적인 고(苦)입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데 벌레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고가 많단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 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금방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까지 다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 겁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뭘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다 앉혀서 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비 틀리는 대로 그것을 집어간 사람이 비비 틀린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그 농촌에서 무엇을 아마 크게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깐 그 마을에서 전부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는 고양이를 시루에다 앉히고는 쪘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손주를 봤는데, 머리는 고양이고 몸뚱이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묻어 버린 예가 있다 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렇게 묻어 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아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의 근본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데 열심히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모르는 게 그냥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도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정진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상대를 놓고 하면 안 되고, 또 내면으로라도 '해 주시오' 하고 상대를,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당신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 주시오' 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관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관세음이라고,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자면 네가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들이고 내고, 이게 모두 네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딱 드잡아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섰다 하면, 지팡이가 완전히 섰다 하면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도, 그게 전부 업식인데, 업식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큰 에너지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허,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 봤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행동이 그렇게 돼야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거웁고 좀 색다르게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도 부딪치기도 하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전전긍긍하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증오하고….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제 아비를 닮아서 저렇지!" 또 아버지는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싹을 망쳐 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배움에 따라서 종교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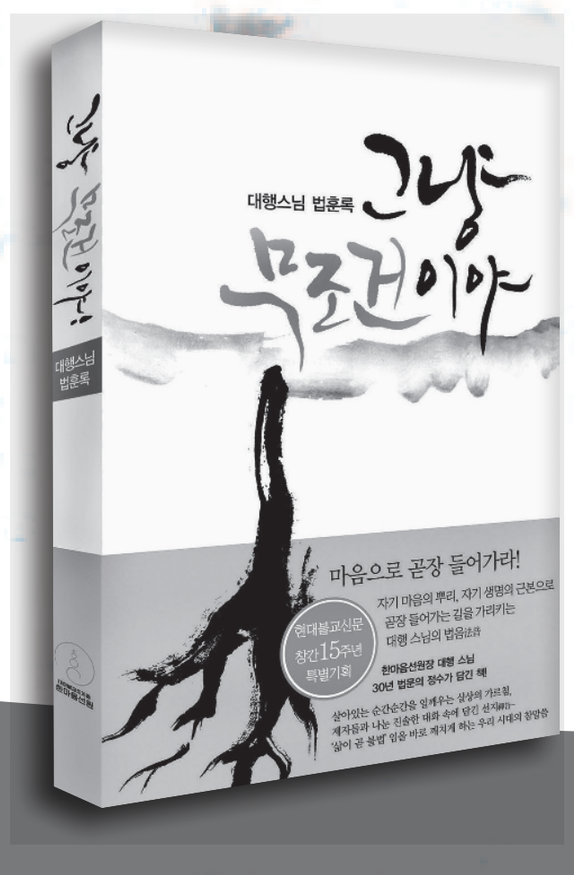
우리가 종교를, 어디 가서 남편이 잘되게 빈다, 자식이 잘되게 빈다 하고서 산기도를 무슨 백일을 한다, 천 번을 절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그러죠. 천 번 절한 것도 바로 일정례에 속한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둘 아니게 한다면, 만 번 하는 것보다 일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들을 다 그냥 정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기도 간답시고 멸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고기도 한 칼 안 먹이면서 "백 일 동안은 먹지 맙시다." 하고선 그냥 다 안 먹이고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백 일이 일 초가 될 수 있어요, 일 초! 일 초가 모르면 백 일이고, 백 일이 만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 생각을 잘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고, 절룩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 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좀 보세요. 우리가 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세음이라고 그런 게 지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만물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관(觀)! 그래서 볼 때에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질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 그 나무 한 그루도 어떤 거는 목신(木神)이 인사를 해요.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신처럼, 세상에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가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 21면에서 계속

래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앙당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말없이 그냥 움죽거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 있게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죠.

그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 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안 되겠습니까?

불교에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들어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라고, 귀신들이 들끓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 불교 속에 들어 있다." 하고선 그냥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불교 속에 들어 있다." 이러고는 그냥 "당신네들도 기복이야, 전부 기복이야. 여기 이쪽이 귀신이고 그런다면 너희들도 귀신이다, 그 마음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불교가 그렇다고 해서 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럭하고 있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이든가 친구들이든가 죽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그것이 둘이 아니게끔 거기다가 모두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뭐, 쇠 부스러기가 그냥 붙어서 하나가 돼 버리는데, 그냥 자석에 한 덩어리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탈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 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떼어 버리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붙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떼어 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떼어 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떼어 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럭하고 만날 떼어 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하하하.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놔라. 거기다 놓으면,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 버린다. 불덩어리에다가 그냥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 버린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 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 난다. 이사를 가고 오고 삼재가 들고 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그런 거를 일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하하하.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산다고 하고 살 겁니까? 만날 고통이지!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미련하면 무조건 거기다 놓으라면 그냥 무조건 놓으니까. 그런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라는 이름도,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요, 종교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다 이름입니다. 그건 다 이름일 뿐이에요. 나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항상 그런 말 잘하죠. 저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치고 온통 그냥 혼란을 부리고…, 이게, 이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수라장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통, 즉 본다, 듣는다, 남의 마음을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가고 옴이 없이도 가고 오고 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싹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싹 벗어나서, 아예 다 내려다보고 다 그냥 모두가 그저 사대(四大)를 다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래니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하다면 중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한 게 여러분과 나와 둘 아니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천장에 전구가 쭈욱 이렇게 있죠? 너 나가 모습은 다 이렇게 달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만날 하죠? 그러니까 둘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요,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 나가면서 믿어 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낸다 이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의리도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 의리로 봐도 그렇고 도의로 봐도 그렇고 아, 어떻게 그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켜 놓고, 촛불 하나 켜 놓고, 물 하나 떠 놓고 생수 떠놓고, 참 떡 한 조각이라도, 그 찹쌀떡이라도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그 길러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둘 아닌 자리에 함께하소서.' 하고 그냥 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오늘 어르신네 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 사 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 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해도, 불을 켜 놓고…. 그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 그렇게 해 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하하하, 바꿔진 거뿐이니까.

아이,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지낼 때 지게를 지고 가니까 "왜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길래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가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럽니다. 이거 모르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밉게 생각을 한다, 저것 증오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둘이 아닌데 너도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도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그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해 보십시오.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내 몸과 자식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질문자1(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몇십 년을 신봉하다가 스님의 "우리 믿음은 과학적이다." 이런 데에 매료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간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설법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과의 구별이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설법에서도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주인공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의 '님'입니다.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 하나의 자기부터 세워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지팡이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의에 있다고 생각하고들 찾는 것은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예수도 '나를 믿어라' 이랬지 언제 '타의의 모든 것을 믿어라' 이랬습니까? 나를 믿으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은 '모두 각자 나를 믿어라' 했던 건데, 모두 모르고 '자기를 믿어라' 이러니까 모두 한군데로 몰려서 '예수를 믿으랬다' 이렇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고쳐 나가면서 이루어야 우리 지구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찾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요? 또한 아울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이, 여직껏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거, 나는 아주 그 이름 자체도 없애고 싶다고요. 관(觀)이지! 자기를 자기가 관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신심이 돈구어진다 이러는 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익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도다. 이게 누진(漏盡)이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
>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언론 대선 보도, 괜찮은가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내년 3월 9일 열릴 대선 앞두고
정당 · 후보자 보도 열기 뜨거워
과연 제대로 된 보도 이뤄지는가

떼거리 · 경마 · 갈등 지향보도들
정책 아닌 선거전, 비방만 관심
유권자들 정치 냉소주의 유발해

객관적 · 공정한 선거보도 통해
후보들 공약과 가능성 검증해야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 열기가 뜨겁다. 시민이 직접적 참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전통적으로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서 부각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문제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는 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언론의 영향력이 이런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커짐으로써 언론은 정당과 기타 정치적 행위자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현대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크게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시민에게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시민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는 학습의 장이 된다. 선거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언론은 크게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역할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시민 학습을 위해 중요한 선거이슈에 관해 활발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연 언론이 선거보도에서의 제시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언론이 개선해야할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떼거리 저널리즘이다. 이는 각 후보가 만들어주는 뉴스 이벤트에 무리지어 쫓아다님으로써 일률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전하는 현상이다. 이런 취재 방식은 결과적으로 언론사마다 비슷한 기사를 생산한다. 언론은 정치인이 만들어주는 뉴스 현장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정책노선과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비교 평가하여 정책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각 당의 대선 공약을 엄밀히 비교하여 가능성과 문제점 및 극복 방안 등에 관해 사실적이며 지적인 분석을 추구해야 한다. 유권자가 언론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보고 나면 유권자 스스로가 각 당 공약의 우열성에 관해 하나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사실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경마 저널리즘이다. 선거보도에서 경마 저널리즘이란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이슈와 같은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본질적 정보보다는 후보의 득표 전략, 상대 후보에 대한 공략 전술, 득표 전망, 현재의 우열상 등 게임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경마 경기를 구경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보도를 일컫는다. 선두주자, 다크호스와 같은 경마 용어로 도배된 흥미위주의 경마적 접근은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케 하여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채질하여 결국은 선거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갈등 지향 저널리즘이다. 이는 언론이 후보자 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붙이는 보도양식을 말한다. 언론이 문제를 만들어 싸움을 유도하는 보도행태로서 보도의 대상은 정책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상대 후보의 자질, 이념적 색깔과 관계되는 사안들이다. 언론의 싸움 붙이기 보도양식은 각 후보자들로 하여금 언론 노출을 위한 상호 비방 성명전 같은 '선수치기 경쟁'을 유발시켜 선거분위기를 불필요하게 과열시키고 혼탁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보이용의 수단과 매체가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 정보의 획득과 소통은 더욱 편협해져서 확증편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후보자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공약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社 說

상월결사 정신, 전방위 확산하자

상월결사 삼보순례가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423km를 64만보 넘게 걸은 순례단은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외쳤다.

우리는 항상 변화를 외친다. 하지만 정작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서는 이는 적다. 찬서리가 내리고 손발이 시려 따뜻한 곳이 그리움에도 끊임없이 정진한 순례단에서 불교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깃발을 들고 있어서다.

삼보순례는 100여 순례대중이 함께했다. 지원단과 일일동참자까지 하면 최대 500명은 함께 순례했다. 연인원 수천 명을 넘는 불자들이 하나의 목표로 정진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순례단의 순례는 현장 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불교중흥의 씨앗이 이제 발아할 일 만이 남았다.

순례과정에서는 그러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순례단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박수와 격려로 맞이한 지역불자들, 마을회관에서는 빗길을 걷는다고 커피를 타와 내주던 주민들, 모두 중흥의 원동력이다.

상월결사는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우리 삶 속에 생동하는 불교로 나아가자는 일대 선언이다.

그렇기에 순례는 과정일 뿐이다. 순례단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번 들어올려진 만행결사의 기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펼쳐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순례 이후 그 메시지를 받아 불교 혁신의 장을 펼쳐야 한다. 종단부터 일선 사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전법포교에 나서고, 불교가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정청래의 왜곡된 인식 규탄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사찰을 '봉이김선달'로 폄훼한 데 대한 불교계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제 공분을 넘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 따른 오해와 편견, 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인식이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본 사람한테만 받아야 겠지요?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지요?" 불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문제의 발언이다.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이 발언 속에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찰은 국가땅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길을 지나가는 명목으로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찰의 소유재산에 따른 비용이며, 이 가운데는 명승지나 문화재보존구역 등이 포함됐다.

한발 더 나아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게 된 경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던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빚어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당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항의방문을 한 조계종 관계자들에게 대신 사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이미 오랜 세월 자발적으로 행해 온 전통문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조차 강제화되면서 각종 규제에 막혀 고통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역사와 법적 근거를 다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행운은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 별자리 등에 매달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별자리 등 여러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쁜 징조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결코 나쁜 징조가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행복한 곳도 아니요 괴로운 곳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해질수도 있고 불행해 질수도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 예쁜 사람도 미운 짓 하면 미워지고, 못생긴 사람도 좋은 일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와 마음자세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행운인 것 같지만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앞에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늘이나 신이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도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운명과 행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행운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운은 내 행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운도 따라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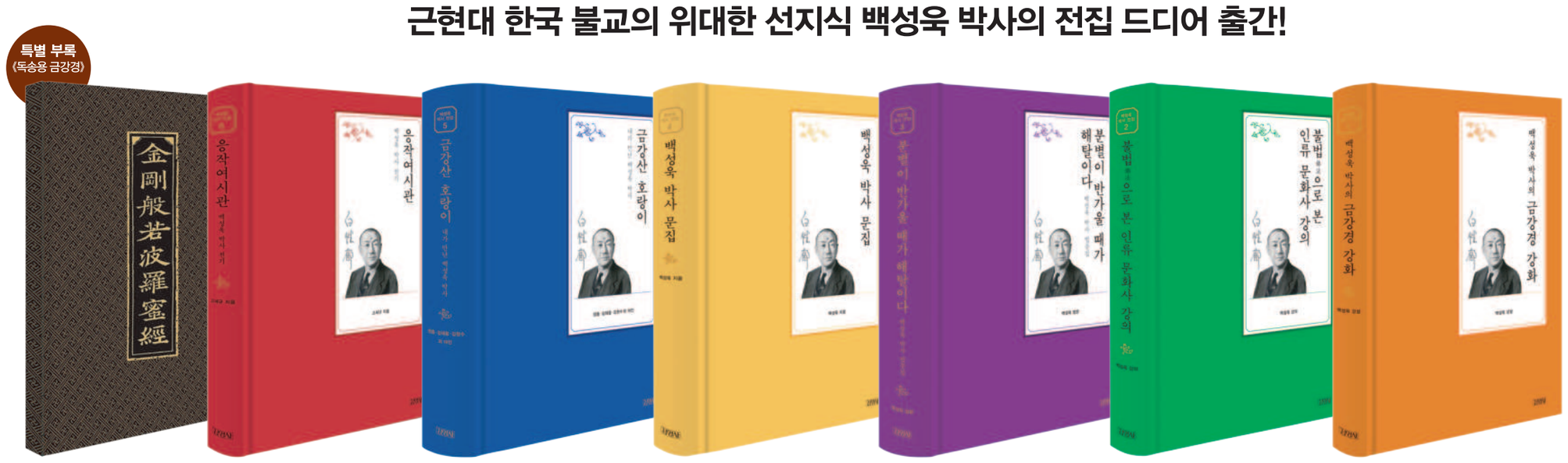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내 말도 갖지 말고 다 바쳐라”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박사, 금강산 10년 수행 후 도통을 이룬 시대의 활불活佛,
건국 운동가이자 내무부장관, 동국대 총장이자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지식 백성욱 박사의 전집 드디어 출간!



백성욱 박사 전집

백성욱 박사 전집 1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강화

백성욱 강설, 김강유 · 이광옥 · 김원수 받아적음 | 412쪽 양장 | 19,000원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 수행할 것인가! 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이 돋보이는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해설서. 1959년 동국대 강의를 바탕으로, 문도들의 사가에서 설한 추가 강의까지 정리해 함께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2

불법佛法으로 본 인류 문화사 강의

백성욱 강의, 이광옥 · 김강유 받아적음 | 528쪽 양장 | 23,000원

불교의 관점에서 인류와 세계, 문화와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헤친 백성욱 박사의 인문학 특강. 동국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20장으로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3

백성욱 박사 법문집 :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

백성욱 법문 | 840쪽 양장 | 29,000원

흩어져 있던 백성욱 박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한 법문집. 부처님께 마음 바치는 법과 《금강경》 독송 수행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분류해 19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지인과 학인이 전하는 도인의 생생한 일화도 담겨 있다.

백성욱 박사 전집 4

백성욱 박사 문집

백성욱 지음 | 600쪽 양장 | 26,000원

백성욱 박사가 직접 쓴 논문 · 시 · 에세이 · 편지 · 법문 등 글 모음집.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순전철학〉을 포함하여, 《불교》《동광》《동아일보》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의 글을 모았다.

백성욱 박사 전집 5

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 : 금강산 호랑이

정종 · 김재웅 · 김원수 외 19인 | 736쪽 양장 | 29,000원

서정주 시인, 백낙준 총장 등 22인의 명사와 학인들이 백성욱 박사의 진면목을 밝힌다. 백성욱 박사와의 일화, 소사에서의 생활, 열반에 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과 수행기.

백성욱 박사 전집 6

백성욱 박사 전기 : 응작여시관

고세규 지음 | 404쪽 양장 | 18,000원

백성욱 박사에 대한 각종 기록과 언론 자료, 지인과 제자 학인들의 회고를 토대로 정리한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세계. 편지와 논문, 시와 에세이, 주요 강의와 법문 등을 집약하여 펴낸 백성욱 박사에 대한 최초 본격 전기. 한 권으로 맛보는 백성욱 박사의 문장과 말씀, 일대기와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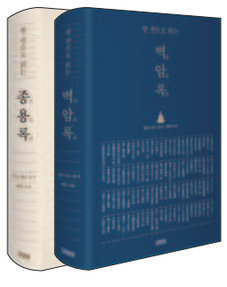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몸은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마음은 안정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니,
육체로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십시오.
그저 부지런히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 하여 자꾸 바치십시오.”

주문 및 문의 02-3668-3250 낱권 및 6권 세트 판매. 전6권 세트 144,000원(별책 부록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 증정)

언어로 언어를 부수는 문자선의 향연! 선禪 수행자의 필독서

선어록의 양대 산맥을 한 권으로 독파한다.
임제종 《벽암록》과 조동종 《종용록》의 정수를
정통 선학자의 명쾌한 해설로 각각 한 권에 담았다.
당대 최고의 공안公案을 가려 뽑은 선의 교과서.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504쪽 | 21,000원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
원오 극근 편저 | 혜원 역해 | 616쪽 | 23,000원

불교의 핵심이자 21세기 대안 패러다임 연기법을 입체적으로 탐구한 역작

양자역학·뇌과학·생물학적 인식론 등 최신 학문과의 상호 점검,
아비담마·유식·여래장·중관 등 불교 여러 학파와의 비교,
힌두교·도교 등 유사 개념과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연기법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바른 이해로 이끈다.



인식이란 무엇인가
신용국 | 608쪽 | 28,000원

호쾌한 선線과 농담濃淡으로 풀어낸 농담弄談 같은 선禪의 통쾌한 가르침

왜 스님은 강에 빠진 사내를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까?
왜 사내는 경전을 박박 찢으며 호기롭게 웃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한중일 옛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선사들의 시와 함께 흥미롭게 담아냈다.



2020 올해의 불서 · 2021 세종도서 선정
선禪의 통쾌한 농담
김영욱 | 304쪽 | 17,800원

사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시간! 수행하는 철학자가 밝힌 나와 세계

불교의 핵심개념인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일상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법칙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친다.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한자경 | 240쪽 | 14,800원